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5 04

2015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된 인천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독서활동을 지원합니다.

INCHEON 2015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시민과 함께 열어갑니다

일시 2015. 4. 23 ~ 2016. 4. 22



인천항

박팔양 _ 1927



조선의 서편항구 제물포 부두.
세관의 기는 바닷바람에 퍼덕거린다.
젯빛 하늘, 푸른 물결, 조수 내음새,
오오, 잊을 수 없는 이 항구의 정경이여.

상해로 가는 배가 떠난다.
저음의 기적, 그 여운을 길게 남기고
유랑의 추방과 망명의
많은 목숨을 싣고 떠나는 배다.

어제는 Hongkong, 오늘은 Chemulpo,
또 내일은 Yokohama로,
세계를 유랑하는 코스모포리탄
모자 빼딱하게 쓰고, 이 부두에 발을 나릴 제.

축항 카페에로부터는
술취한 불란서 수병의 노래
“오! 말썰이유! 말썰이유!”
멀리 두고 와 잊을 수 없는
고향의 노래를 부른다.

부두에 산같이 쌓인 짐을
이리저리 옮기는 노동자들
당신네들 고향이 어데시오?
“우리는 경상도” “우리는 산동성”
대답은 그것으로 족하다.

월미도와 영종도 그 사이로
물결을 헤치며 나가는 배의
높디높은 마스트 위로 부는 바람,
공동환의 깃발이 저렇게 퍼덕거린다.

오오 제물포! 제물포!
잊을 수 없는 이 항구의 정경이여.

몽(夢)땅 인천골목



어머니의 경작지

올봄에도 어김없이 어머니는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앞마당에는 물론 커다란 함지를 구해

상추, 고추, 호박 등을 심었습니다.

심을 땅이 모자라 못내 아쉽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곳이 있습니다. 담벼락이었습니다.

올해부터 그곳은 어머니의 새로운 경작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수확한 농산물은 얼마 전 시집간 막내 딸네 몫입니다.

— 동구 송림동에서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인천항

박팔양 _ 1927



조선의 서편항구 제물포 부두.
세관의 기는 바닷바람에 퍼덕거린다.
젯빛 하늘, 푸른 물결, 조수 내음새,
오오, 잊을 수 없는 이 항구의 정경이여.

상해로 가는 배가 떠난다.
저음의 기적, 그 여운을 길게 남기고
유랑의 추방과 망명의
많은 목숨을 싣고 떠나는 배다.

어제는 Hongkong, 오늘은 Chemulpo,
또 내일은 Yokohama로,
세계를 유랑하는 코스모포리탄
모자 빼딱하게 쓰고, 이 부두에 발을 나릴 제.

축항 카페에로부터는
술취한 불란서 수병의 노래
“오! 말썬이유! 말썬이유!”
멀리 두고 와 잊을 수 없는
고향의 노래를 부른다.

부두에 산같이 쌓인 짐을
이리저리 옮기는 노동자들
당신네들 고향이 어데시오?
“우리는 경상도” “우리는 산동성”
대답은 그것으로 족하다.

월미도와 영종도 그 사이로
물결을 헤치며 나가는 배의
높디높은 마스트 위로 부는 바람,
공동환의 깃발이 저렇게 퍼덕거린다.

오오 제물포! 제물포!
잊을 수 없는 이 항구의 정경이여.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이 전자책으로도 서비스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서점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바로북, 북큐브, 예스24 등에서 굿모닝인천 전자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화보 백령도 기가 아일랜드 선포	06
니하오 유커 한국 전통문화 공간	08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책의 수도 의미	14
개막행사 및 이벤트	16
다문화 아동 독서지원 서비스	20
인천의 섬 신도·시도·모도	24
포커스 섬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30
까치발로 본 인천 ④ 하버파크호텔 → 자유공원	32
내 일 내 길 40년 시정 사진을 찍은 심영보 씨	36
CULTURE INFO	38
NEWS BRIEF	42
COUNCIL NEWS	46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50
INFO BOX	52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아! 옛날이여'	56
이 달의 책	57
모닝 커피 한잔 이태선 인천청년유니온 위원장	58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5년 4월 5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우승봉(대변인) 편집장 유동현
(홍보콘텐츠팀장)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 편집위원 정경숙 /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보섭·정정호·김상덕·유창
호(자유사진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디자인 ㈜씨에디터 인쇄 ㈜보현토탈프린팅

CONTENTS 2015. 04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56



COVER STORY

4월 23일은 전 세계에 인천이 책의 수도임을 알리는 날입니다.
인쇄, 활자, 출판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인천은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칩니다. 또 '책으로 하나되는 세상' 비전을 실
천하고 차별 없는 지식정보를 나누고자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독서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표지사진은 필리핀 결혼이주인 여
성 라겔씨와 아이들, 촬영장소 인천광역시 중영도서관

소통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인천시는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세상과 통하는 또 다른 문’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소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인천 날씨 ‘쾌청’

시민께서 인천시 종합민원센터 미추홀콜센터의
트위터(@120incheon)를 통해 문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과
‘굿모닝인천’을 통해 보내주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 날씨는 언제나 ‘쾌청’.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120incheon

인천대교로 관광을 가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입니다.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계시는 곳에서 인천대교로 오시려면 영동고속도로에서 제3경인고속도로를 타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대교고속도로 3(운남동 1113-70)'을 입력하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접수 가능한 곳이 어디인가요?

↳ 안녕하세요. 시민님. 문의하신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동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에 가까운 구청에서 접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에 주말농장에서 텃밭을 일구고 싶어요. 송도국제도시 안에 있는 친환경 주말농장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말농장 관련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환경녹지과 453-7252, 송도국제도시 해돋이공원 관리사무소 721-4407, 4481, 4405입니다.

TO. 굿모닝인천

진정한 인천을 담은 ‘굿모닝인천’

인천은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다. 지금 인천에선 내가 처음 이 도시에 발을 붙인 20년 전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송도국제도시나 인천국제공항 등 인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그 역동적인 힘은 깊은 역사적 뿌리와 인천 사람들의 강인한 정신에서 나온다. 지금껏 그래왔듯 ‘굿모닝인천’을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인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길 바란다. 그 마음으로 ‘굿모닝인천’을 한 권 두 권 모아 이웃에게 전하곤 한다. 인천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녹아 있기에.

박현주 남구 토금남로

인천은 ‘세계 책의 수도’

인천시가 이달 23일부터 1년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수도인 것으로 압니다. 저는 ‘굿모닝인천’을 평소에 열심히 읽고 책에 관심이 많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직 인천시가 세계 책의 수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일 년 동안 홍보가 잘되고 행사도 성공적으로 진행해, 훗날 인천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은 남동구 논고개로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독자 윤암전(73, 남동구 하촌서로)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 / goodmorning.incheon.go.kr

독일 건너, 인천 하늘 아래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어요. 찾아뵙고 싶은데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또렷하고 낭랑하다. 굿모닝인천 편집실로 찾아 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봄꽃같이 노란 스웨터를 입은 고운 어르신 이셨다.

윤암전(73) 할머니는 1960년대 후반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독일로 파견을 떠나자, 그리움에 파독 간호사가 되어 남편의 뒤를 따랐다. 할머니는 빗바랜 사진첩을 열고 기나긴 사연을 굵이굵이 펼쳐놓았다. 흑백영화의 한 장면처럼 소소한 일상이 담긴 사진부터, 역사 자료집에서나 볼 법한 귀한 역사적 사진들이 쏟아져 나온다. 고향을 떠나 떠나 먼 이국땅에 머무른 세월이 십여 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여서 행복했지만, 인천은 늘 그리움의 존재였다.

다시 찾은 인천에서 노년을 보내는 지금, 특별할 것 없지만 별다른 충돌 없이 흘러가는 삶에 감사하다. “남편이랑 오순도순 살면서 ‘굿모닝인천’ 함께 읽고 좋은 데 찾아가고 이런 게 행복이에요. 바람이라면 내 글이 이 책에 실렸으면 좋겠어. 독자 참여란을 좀 늘리는 게 어때요.” 할머니의 욕심 없는 마음이 사진 속 환히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얼굴처럼 참 곱다.

※윤암전 할머니의 사진은 본지 56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미디어 블로그 ‘인천N조이’(blog.naver.com/happyou)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ilyic)
블로그(incheonblog.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카카오톡(story.kakao.com/ch/incheoncity)



백령도에 ‘정보의 다리’ 놓는다

우리나라 최서북단의 섬 백령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효녀 심청의 이야기가 내려오는 아름답고 서정적인 곳이지만,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안보의 중심지이자 긴장지대이기도 하다. 백령도는 육지와 228km나 떨어져 있어 첨단시설은 물론, 의료, 교육 혜택의 사각지대였다. 시는 KT와 공동으로 ‘백령도 기가 아일랜드’ 사업을 추진, 백령도와 육지를 잇는 228km 정보통신기술(CT)다리를 놓아 섬 주민들의 문화, 예술, 교육,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

백령도는 인천에서 배로 네 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우리나라 최서북단에 있어 맑은 날이면 북한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이다. 백령도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의료, 교육, 문화, 정보기술로부터 소외돼 있었다. 제대로 된 교육, 문화 시설이 없어 방학 때만 되면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기 위해 인천으로 유학을 떠나야 했다. 병원도 백령병원과 각 지역에 보건지소가 있지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건강검진을 제때 받기가 어려웠다.

인천시와 KT가 추진하는 ‘백령 기가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기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CT)을 기반으로 도서, 산간 지역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의 ‘임자 기가 아일랜드’,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의 ‘기가스쿨’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다. 시는 도서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령 기가 아일랜드’ 사업은 여객선 이용객 및 어업인의 통화 품질 개선을 통한 해상지역 통신망 서비스 향상, 백령도 관내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요 기관 100Mbps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지원, 어민 안전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노약자의 자가 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밴드 지원, 아동·청소년을 위한 백령

도서관 온·오프라인 교육지원 사업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KT는 백령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CCTV 및 보안시스템’ ‘개인 건강관리 솔루션’ ‘롱텀에볼루션(LTE) 무선서비스’ 등 각종 ICT를 도입했다. 심신 취약계층 100명에게는 스마트워치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들의 운동정보 및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또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 LTE·무선 LTE를 지원하고, 26개 대피소에 음성통화와 화상통화를 지원하는 등 백령 주민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KT는 백령도에 인터넷TV의 주문형 비디오 서버를 추가로 구축해 해우나 태풍 등 악천후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파도가 높아 어업 활동이 어려운 1~2월에 CCTV를 통해 선박이나 어업 장비의 파손·도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 “백령도는 인천에서 배로 네 시간이나 걸리는 섬이지만, 기가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ICT에서는 전혀 거리감이 없는 지역이 됐다”며, “모든 섬을 보물섬이라고 생각하고 지역 간 정보 격차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햇살 드리운 돌담길 따라, ‘전통 인천’을 걷다

다른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다름 아닌 그 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이다. 한국을 찾은 유커(遊客)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인천 곳곳에 스민 옛 향기를 따라 걷는 길, 겹겹이 쌓인 기와지붕, 곱디고운 단청, 바람결에 흔들리는 풍경(風景), 햇살이 비치는 돌담길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마음에 남아 흐르고 흐를 ‘한국에 대한 각인’이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위엄 흐르는 옛 관아 도호부청사

문학경기장 맞은편, 분주함으로 가득한 도시 한가운데 옛 건축물이 고즈넉이 펼쳐져 있다. 시 유형문화재 제1호인 인천도호부청사는 조선시대의 행정기관으로 지금의 시청과 같은 역할을 했다. 문학초등학교 교정에 왕권의 상징이었던 객사와 동헌의 일부가 보존돼 있으며, 도호부청사에 객사, 아문, 동헌, 공수 등 건물 일곱 동이 옛 느낌 그대로 복원돼 있다.

도호부청사로 가는 길, 탐스러운 햇살이 돌담길을 환히 비춘다. 그 빛 따라 관아의 정문인 아문에 다다른다. 눈앞에 2층으로 된 누각이 기세등등하게 솟구쳐 있다. 검푸른 빛의 팔작지붕은 금방이라도 쪽빛 하늘로 날아오를 듯하다. 아문을 지나 또 한 번 중문을 거치면, 도호부사의 집무실인 동헌에 이른다. 높다란 계단을 올라 다다른 동헌에는, 당대 지역 최고 실력자의 지위에 어울리는 기품과 위엄이 서려있다. 도호부청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면 객사에 발길이 닿는다. 임금의 위패를 모시던 신성한 곳으로, 그만큼 전망이 뛰어나고 몸체가 화려하다. 지붕을 높이 올린 솜대문이가 품을 활짝 열고 역사의 시간 속으로 낯선 여행객을 인도한다.

.....
위치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349-11)

관람시간 하절기(3월~10월) 오전 10시~오후 7시, 동절기(11월~2월)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한 걸음 더 연날리기, 널뛰기, 투호 등 다양한 민속놀이와 전통의상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또 외국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전통혼례 시연과 전통 민속 공연이 정기적으로 열린다.

문의 인천도호부청사 www.dohobu.org, 422-3492

맥맥이 이어 온 선비 정신 인천향교

향교는 조선시대에 옛 성현들의 제사를 지내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육기관이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지만, 옛 선비의 고매한 정신은 아직 살아 숨 쉬는 듯하다. 인천에는 인천향교, 부평향교, 강화향교, 교동향교 모두 네 곳의 향교가 있다.

도호부청사 왼편,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홍살문을 지나면 시간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 유형문화재 제11호인 인천향교는 도시 한가운데에서도 본연의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어 그 가치가 높다. 높다란 계단을 하나둘 오르다보면 위용 넘치는 커다란 대문 앞에 다다른다. 그 문을 지나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건물이 명륜당, 유생들이 모여 학문을 배우고 논했던 글방이다. 마당을 중심으로 중앙에 공자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과 양옆으로 유생들의 숙소인 동재, 서재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옛날 자연을 벗 삼아 학문을 익히고 풍류를 논하던 선비들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
위치 남구 매소홀로 442(학익동 677-1)

관람시간 하절기(3월~10월) 오전 10시~오후 7시, 동절기(11월~2월)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한 걸음 더 향교 유림화관에서 한글, 서예, 다도 등을 가르치는 명륜학당이 열린다. 또 선현의 종적을 기리는 석전대제가 음력 2월과 8월, 일 년에 두 번 열린다.

문의 인천향교 www.ichg.or.kr, 876-7041



인천 이씨의 뿌리를 찾아서 원인재

현대적 풍경 속에 더디고 정묵한 옛 풍경이 오롯하다. 원인재(源仁齋)는 인천(인주) 이씨의 중시조인 이허겸의 제사를 지내던 재실이다. 원래 현재 인천여고 자리인 신지마을에 있었지만, 주변이 택지로 개발되면서 승기천 근처의 이허겸 묘역으로 이전했다. 원인재는 원인재, 돈인재, 율수재, 승휴당, 명인당 등 예스럽고 아담한 건물 다섯 채로 이루어져 있다. 사대부 집안의 가옥 양식에 따라 지은 고택들은 기품 넘치면서도 꾸밈지 않은 듯 겸양의 미덕을 품고 있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돈인재는 위풍당당한 풍채가 돋보인다. 또 남쪽을 제외하고 모두 마루를 내어 시원하면서도 간결한 멋이 흐른다. 나지막한 언덕을 오르면 소나무 숲이 든든하게 감싸고 있는 이허겸의 묘가 나온다. 고려시대 담장묘 형식으로 1천 70여 년에 이르는 긴긴 세월을 비밀스레 간직하고 있다. 언덕에서 내려와 원인재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작은 연못 하나가 나온다.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마주하는 곳마다, 고택 특유의 멋과 여유가 서려 있다.

.....
위치 연수구 경원대로 322(연수동 584)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문의 원인재 821-1230



국제도시 한가운데 비류의 왕국 미추홀공원

미추홀공원은 인천의 모습을 꼭 빼닮았다. 이름부터 인천의 옛 지명인 ‘미추홀’에서 따온 공원은 비류가 세운 고대국가의 역사적 이미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풍경을 한 바퀴 휘 돌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하다. 공원을 한가로이 거닐다 2층으로 된 누각 ‘인화루’에 오른다. 살랑하게 부는 바람을 맞으며 인천의 팔경을 내려다본다. 공원 한가운데는 커다란 연못이 있다. 인천 앞바다를 상징하는 ‘미추홀 바다’다. 물가를 따라 문학산의 아지랑이, 청룡산의 구름, 오봉산의 달, 호구포로 지는 낙조 같은 인천 8경이 이어져 있다. 그 사이사이 보이는 높다란 빌딩숲이 이곳이 도시 한가운데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너른 마당으로 들어선다.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이 위풍당당 마당을 에워싸고 있다. 사람 몸에 동물의 얼굴을 한 조각상이 엄숙하면서도 흥미롭다.

현대적 풍경 사이 고전적인 정취가 대비되듯 조화로운 공원에서 보내는 하루, 푸른 휴식은 덤이다. 발길 닿는 곳곳에 소나무와 야생초가 자라고 있어 자연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
위치 연수구 송도동 미추홀공원

한 걸음 더 미추홀공원 안에 있는 갯별문화관과 다례원에서는 다양한 전통문화 강좌를 진행한다. 도예, 서예, 생활다례, 대금, 단소 등을 배울 수 있다. 다음 달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한마당이 열릴 예정이다.

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453-7257
갯별문화관 www.kbculture.co.kr, 466-5620, 1



변치 않을 가치를 잇다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요즘 세상은 참 빨리도 변한다. 하지만 편의를 좇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는 존재한다.

남구 송학산 기슭에 구성지게 울려 퍼지는 우리 가락을 좇다 보면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발걸음이 닿는다. 전수교육관은 전통문화체험관과 야외공연장, 무형문화재 홍보관 등을 갖추고 지난해 8월 개관했다. 국가 중요무형문화재와 시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들이 이곳에 모여 한국 전통문화 예술의 향기를 세상에 퍼트리고 있다.

매마침 야외공연장에서는 ‘인천근해 도서지방 상엿소리(인천시무형문화재 16호) 보존회’의 공연 연습이 한창이다. 상엿소리 보유자 박상주(81) 선생의 북소리에 맞춰,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진다. “장례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전통 상여문화가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지켜 온 전통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생이 다하는 날까지 공연을 계속 할 겁니다.” 나이 든 상여꾼들이 부르는 상엿소리가 아직은 서늘한 봄 공기를 뚫고 다시 구성지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
위치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349-11)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한 걸음 더 목공예, 전통자수, 단청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예술 강좌를 진행한다. 한국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외국인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인천 알리기(Hello! Incheon)’가 열렸다.

문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ilc.incheon.go.kr, 440-8083~6

한국을 고스란히 담은 맛

옛 향기를 따라 걷는 길, 허기진 배와 미각을 충족하는 음식으로는 한정식이 어울린다. 구월동에 있는 ‘영빈관’은 외관부터 고풍스러운 한국의 미가 흐르는 15년 전통의 한식당이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에 남북 고위급 오찬 회담이 열리면서 유명세를 치렀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문도 부쩍 늘었다. 솔잎돌감비구이를 비롯해 20여 가지 야무지고 정갈한 음식으로 차린 ‘라운 한정식’이 인기 메뉴. 연평도 바다에서 나는 꽃게로 열린 시원하게 끓여낸 꽃게탕도 최근 제철을 맞아 많이 찾는다. 바삭바삭한 공갈빵과 새콤달콤한 달강정 등 ‘시장

표 길거리 한식’의 인기도 높다. 한국에 오기 전에 알아낸 이름난 가게 앞에서 오래 줄 서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한편 신포국제시장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시장 골목에 있는 지원센터에 가면 한복을 입고 전통혼례를 체험할 수 있다. 사진 한 장이지만 여행의 추억으로 간직하기에 충분하다.



영빈관 www.youngbinguan.co.kr, 428-0028
신포국제시장 www.sinpomarket.com, 772-5812

활자·인쇄·출판의 ‘新르네상스’

인천시가 인문 르네상스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인천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2015 세계 책의 수도로
‘책과 문화’의 중심지가 된다. 책의 수도는 유네스코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23)을 기념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매년 지정한다.
인천시의 책의 수도 선정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시아에선 세 번째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일러스트 유사라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4월 23일 세계는 책으로 하나된다

인천이 세계 책의 수도로 선포되는 날은 4월 23일이다. 송도컨벤시아에서 전 세계에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의 비전을 알리고, 인천을 책 읽는 도시, 창작 출판이 편한 도시, 인문학적 가치를 창조하는 도시로 만들어 간다.

인천이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것은 출판과 활자 문화의 유구한 역사와 무관치 않다. 인천에는 1782년 세워져 대한민국 도서관의 기원이 된 조선왕조 왕립도서관 외규장각이 있으며, 이 외규장각은 2007년 유네스코가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의궤’가 보관되었던 곳이다.

대한민국은 1977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된 ‘한글’, 1377년 인쇄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2001년 9월 유네스코가 기록유산으로 지정한 ‘직지’, 751년 만들어진 불교 교리로 현재까지 알려진 세계 최초의 목판인쇄술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을 보유한 나라다. 세계 기록문화의 기원을 바탕으로 화려한 출판, 인쇄문화를 자랑한다.

도시·인쇄 통해 출판문화 붐 조성

인천은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된 1년 동안 다양한 책 문화 활동, 도서출판, 인쇄와 관련된 행사를 통해 출판문화의 붐을 조성한다.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관, 문학 탐방, 인천 재조명 등 책을 통해 문화 도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든다. 출판문화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지원도 확대한다.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에게는 독서활동 지원이 이뤄진다.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은 어머니가 한글 동화책을 읽어 주더라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동화책 설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어느 누구도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것도 책의 수도의 역할이다. 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출판 창업을 지원하고 전자출판 아카데미 개설, 전자책, 배다리 헌책방거리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사람은 책을 열고, 책은 사람을 열어’ 지역경제의 혈관에 뜨거운 피가 흐르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책의 수도 기념일인 4월 23일은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와 로미오와 줄리엣의 저자 ‘셰익스피어’가 사망한 날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2001년 스페인 마드리드가 처음으로 책의 수도가 됐고, 2013년 방콕, 2014년은 나이지리아 포트하커트였다. 유네스코는 매년 5대륙을 안배해 세계 책의 수도가 될 도시를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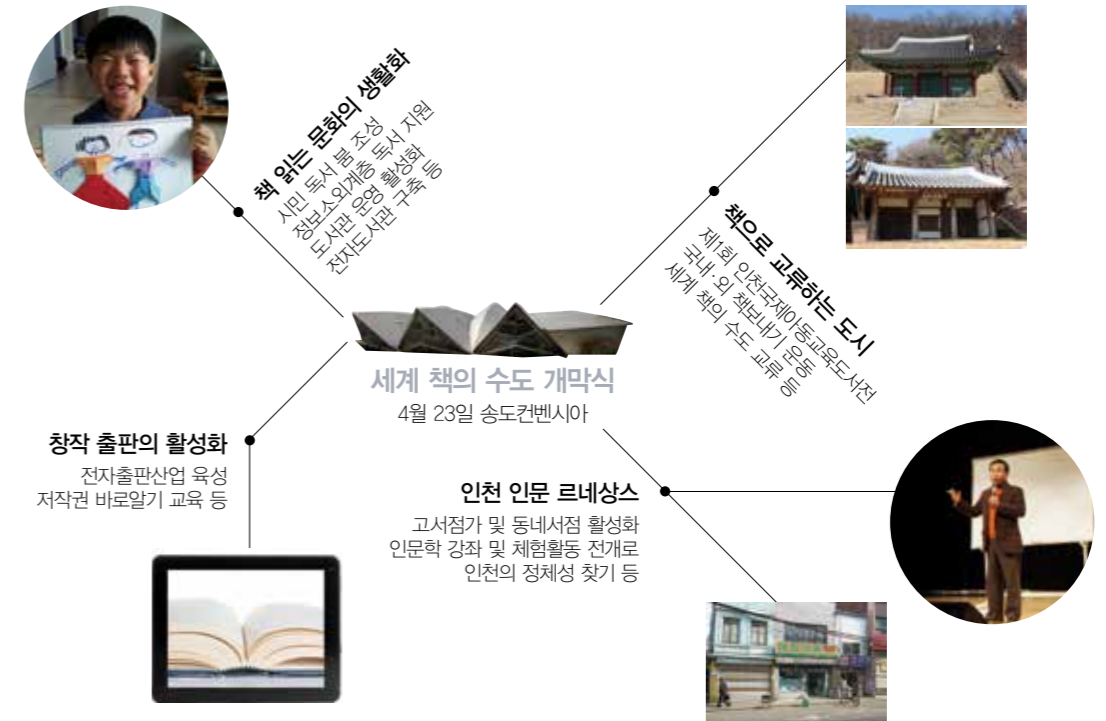


4월 23일 부터

인천은 '북_{book}적_積북_{book}적_積'

올 한 해 인천의 또 다른 이름은 '책의 수도'이다. 책으로 세상을 펼치고, 활자와 묵 향기를 전 세계에 퍼뜨린다. 시는 책을 통해 문화도시 인천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책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공간을 만든다. 또 세계 책의 수도 선정을 기념하는 각종 이벤트, 문화 행사를 마련한다. 인천은 '책의 축제'로 들썩일 것이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 세계 책의 수도 개막식, 4월 23일 17시 송도컨벤시아

세계 책의 수도 개막식이 4월 23일 17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인천의 세계 책의 수도 선정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다. 개막식에는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관계자, 세계 각국 출판업계 종사자, 국제서점연맹, 역대 책의 수도로 선정된 도시, 자매우호도시 시장 등 5백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천의 기록문화를 느낄 수 있는 강화 기록문화 역사 탐방, 북스타트 선포식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기록문화 토론회, 2천만 권 이상의 판매고를 가지고 있는 이문열 작가와 패널리 함께하는 작가와의 대화, 개막식, 전시 및 체험행사,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장인 김정운 작가와 함께 하는 아라뱃길 리딩보트 등 개막식을 전후해 다채로운 행사가 사흘간 펼쳐진다.

● 제1회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 11월 12~15일 송도컨벤시아

제1회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이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 도서전은 같은 달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상하이국제아동도서전과 동시에 참가할 수 있어, 미주, 유럽 출판업계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서전은 우리나라의 강점인 아동에 대한 높은 교육열과 IT

를 접목(Content+Technology+Education+Leisure Media)한 것으로, 출판 관계자들의 유통 및 저작권 거래 등 B2B와 전문포럼 및 세미나, 아동작가와의 대화, 출판업체 부스 운영 등 B2C 행사가 진행된다.

● 한국과 인천의 기록문화전, 10월 30일~11월 29일 시립박물관

'한국과 인천의 기록문화전'이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립박물관에서 열린다. 활자, 인쇄 등 대한민국과 인천의 유구한 기록문화의 역사를 보여준다.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과 한국 및 인천의 기록·인쇄문화, 천년을 품은 고려대장경, 근·현대의 기록문서 등이 전시되고, 구텐베르크보다 200년이나 앞서 발명된 우리 금속활자의 선구적 위상을 홍보한다. 인천국제아동도서전과 연계 추진된다.

● 2015 전국도서관대회, 10월 21~23일 송도컨벤시아

2015 전국도서관대회를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 이 대회에는 국내 도서관 관계자 3천명이 참여해 세미나, 워크숍, 출판·제작 전시회를 열고, 도서관의 역할과 달라지는 위상, 시민의 문화쉼터로 변신하고 있는 미래의 도서관에 대해 논의한다.

● 인천시 통합전자도서관, 5월까지 1단계 구축

‘인천시 통합전자도서관이 구축되어 1인 1스마트폰 시대,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한다. 현재 공공도서관들은 개별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온라인 정보공유가 어려운 상태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개별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을 연계하고 신규 구매 전자책, 오디오북 공동 활용을 통해 인천시 통합전자도서관을 구축한다. 시민들은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전자책(e-book) 및 모든 온라인 서비스의 통합 이용이 가능해진다. 통합전자도서관 구축은 인천시 소관 6개 도서관 및 부평구립 6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운영한 뒤 단계별로 49개 공공도서관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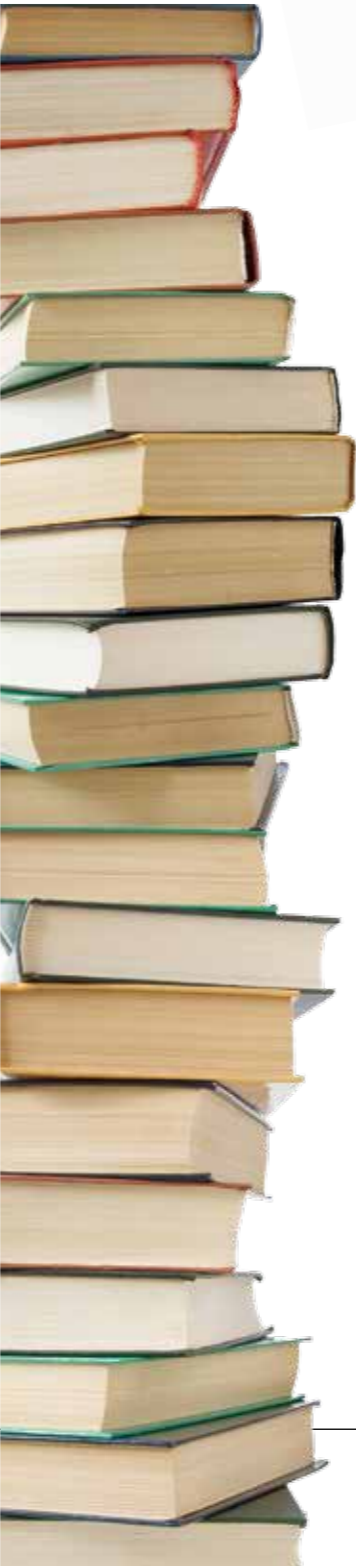
● 책 읽는 문화 생활화… 북스타트, 시낭송회 등 열려

시민들과 책의 거리를 좁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독서 문화의 생활화를 위해 14개 사업을 추진한다.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1인1책 읽고 쓰기 프로그램, 책 읽는 아파트 선정, 마을신문·마을지 제작, 시 창작 및 낭송회 등의 행사를 열어 시민들이 책의 향기에 젖게 한다. 3세 이하 유아들이 책과 친해지도록 ‘북스타트 운동’도 전개한다. 미추홀도서관 등 16개 기관에서 추진한다. 출생신고자와 전입자에게 책 꾸러미를 선물하고 읽어주며 책 놀이 부모교육 운동을 지원한다.

● 인문르네상스… 배다리 고서점가 살린다

책을 통한 인천 인문 르네상스 시대도 연다. 인천의 대표적인 고서점 거리인 배다리를 활성화하고 헌책 축제를 연다. 또 점점 사라져가는 동네서점을 살리는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배다리 고서점가는 인문학 강좌와 체험활동 전개로 인천의 정체성 찾기의 중심이 된다. 인천 리더스 인문학 아카데미를 열어 인문학 붐을 조성한다. 인천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리더스 멤버를 구성하고, 인천 출신 인문학 및 각계 명사들을 초청해 강좌를 연다. 연 8회 개최될 예정이다. 개막식 전날인 4월 24일에는 경인아라뱃길에서 ‘아라뱃길 리딩보트’ 행사를 연다. 경인아라뱃길을 운행하는 코스모스 유람선을 타고 2시간 동안 작가와의 대화, 한국의 고전 소설 낭독, 클래식음악회를 갖고 행복한 문학의 물길을 연다.

● 육필원고 전시회, 4월 11일~6월 14일 한국근대문학관
김동리, 서정주, 황순원, 박경리, 박완서, 고은, 신경림, 조정래 등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던 소설가·시인 46명의 육필원고가 전시돼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박경리의 ‘토지’,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이병주 ‘지리산’ 등 유명 작품의 제목이 들어간 육필원고를 볼 수 있는 전시다. 4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전시된다.



세계 책의 수도 개막 주간 행사(4월 22~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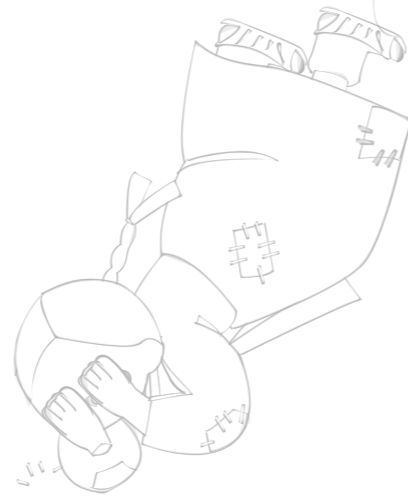
문의 시 문화예술과 440-4009

행사명	날짜 및 시간	장소	비고
북스타트 '아기천사들의 목소리'	22일(수) 오후 2시	송도컨벤시아	
북콘서트	22일(수) 오후 2~4시		
기록문화토론회	23일(목) 오전 10시~오후 12시		
유명 작가와의 대화	23일(목) 오후 2~4시		
개막식	23일(목)오후 5시		
전시 및 체험행사	22일(수)~24일(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문화복지 책 나눔 콘서트	24일(금) 오후 3시		
리딩보트(Reading Boat)	24일(금) 오후 3~6시	경인아라뱃길	
플랫폼 초이스	22일(수)~24일(금)	아트플랫폼	
트라이볼 시리즈	23일(목) 오후 7시	트라이볼	
한국 현대문학 문인 육필 특별전	4월 11일(토), 6월 14일(일)		전시
국제 문학포럼과 문학제 기획의 실제	21일(화)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	강좌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변증적 이해	22일(수)		문학강좌
명시의 유혹, 시는 어떻게 세월을 견디는가?	23일(목)		인문학강좌
다문화체험교실 '시와디캅! 태국' '세계는 내친구'	4~25일	미추홀도서관	
작가와의 만남(최현 작가)	18일(토)	중앙도서관	
작가와의 만남(신병주 교수), 들려주는 독서여행	18일(토)		
작가와의 대화(여인형 교수), 인형극 공연 등	25일(토)		
독서체험행사	23일(목)~24(금)	북구도서관	
북콘서트(이철환 작가)	25일(토)	북구도서관	

다문화 아동 ‘효녀심청’으로 한국문화 배워요

‘레인보우’ 다문화를 상징하는 용어다. 빨주노초파남보처럼 각기 다른 색들이 아름답게 모여 화합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천에도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다문화 아이들의 부족한 한국어 이해력과 어휘력을 기르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독서지원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지식 정보를 소외계층 없이 나누는 것도 세계 책의 수도가 해야 할 역할이다. 인천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뿐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활자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면집위원 사진 유창호 자유사진가



“뚜에비, 이런 집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집에서 살았어요. 초가집이라고 불러요.”

이날 뚜에비(6)가 읽은 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래 동화인 ‘효녀심청’이다. 뚜에비는 태어나서 5년간은 베트남에서 살았고, 작년 인천으로 들어왔다. 한국문화는 당연히 잘 모르고 초가집은 본 적도 없다. 뚜에비의 엄마는 베트남 사람으로, 결혼이주민이다. 엄마는 아직 한국 말이 서툴러 한글 동화책을 읽어줄 수 없다. 더욱이 동화책에 그려진 농기구인 호미, 쟁기, 초가집, 기와집, 한복, 갓, 호롱불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그림들은 설명이 어렵다.

방문형 독서지도로 한국문화 감수성 높여

인천시는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형 독서지도를 통해 한글 동화책 읽어주기와 엄마들이 해주기 어려운 한국문화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돕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 겪는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있는 셈이다.

이날 뚜에비와 함께 독서 활동을 한 윤가은(6)의 어머니는 키르기스스탄 사람이다. 가은이의 어머니 굴잔(40)씨

는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한다. 한국에 온 지도 8년이 넘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할 때 한국문화와 관련된 그림이나 도구가 나오면 순간 당황하게 된다. “아이들이 한국의 옛 물건에 대해 물어보면 주춤하게 돼요.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 후 아이에게 알려주는 편이에요.”

다문화가정 독서증진 프로그램은 한 아동 당 6주간 주 2회씩 12차례 진행됐다. 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전래동화와 세계명작들을 읽어준다. 뚜에비와 가은이는 ‘효녀심청’ ‘홍부놀부’ ‘콩쥐팍쥐’ ‘해님달님’ ‘성냥팔이소녀’ ‘엄지공주’ 등을 읽으며 한글공부도 하고 한국문화도 배웠다. 아이들은 독후 체험활동으로 그림 그리기, 공예품 만들기, 감상문 쓰기, 편지 쓰기 활동으로 책 내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독서활동에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 책읽기와 독후활동 코칭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독서지도를 하고 있는 배순옥 교사는 “어머니가 결혼이주민 여성인 경우 우리나라 한글 동화의 문장 속에 담긴 한국문화와 감수성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뚜에비도 전래동화책을 보면서 한복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결혼이주민 참여, 다국어 한국 전래동화 콘텐츠도 개발
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독서능력 향상을 위해 '다국어 한국 전래동화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한다. 다국어 한국 전래동화 콘텐츠 개발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에서 온 결혼이민자가 참여한다. 이들은 한국의 전래동화를 직접 번역하고 내레이션 하게 된다. 책은 입체 팝업북, 오디오 등을 결합한 멀티미디어 북으로 제작하며, 선정 도서는 '혹부리영감'과 '콩쥐팍쥐'다. 4월까지 제작되는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형태의 한국전래동화 콘텐츠는 인천 시내 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문화 감수성과 아시아권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일반 시민들의 외국어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에게 ‘책 읽어주는 목소리 기부’

장애인도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처럼 책이나 문화로부터 소외되어 있긴 마찬가지다. 연극이나 공연, 전시, 책을 보고 싶어도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자유롭게 접근하기가 힘들다. 점자책 발행도 많지 않아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한 몫 한다. 인천시는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독서복지 차원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책 읽어주는 목소리 기부’ 사업을 실시해 장애인들이 목말라 하는 지식정보를 충족시키고 있다. 인천을 배경으로 한 고동희 작가의 창작극 ‘박달나무 정원’ ‘성냥공장 아가씨’를 녹음도서와 점자도서로 만들었다. 인천의 대표적인 극단 ‘십년후’의 고동희 대표가 쓴 창작극 ‘박달나무정원’은 단군왕검을 배경으로 한 민족 탄생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인천연극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무대미술상, 최우수남자연기상을 수상할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1960~70년대 인천 서구 금곡동을 배경으로 성냥공장에 근무하는 여공원들의 애환을 그린 ‘성냥공장 아가씨’도 매년 뮤지컬로 공연될 정도로 유명세를 떨친 작품이다. 녹음과 점자로 제작된 이 두 도서는 공공도서관에서 빌려 볼 수 있고 향후 통합전자도서관이 구축되면 이곳에 탑재된다. 제작된 책 기증식은 4월 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다.



이 봄이 지나도 머무를, 섬의 기억

다사로운 햇살이 감미로운 사월의 어느 날, 문득 바다가 그리워 길을 나선다.
섬을 찾는 그리움은 길지만 거리는 가깝다. 뱃길로 단 십 분이면,
북도면에 사이좋게 떠 있는 섬 신도, 시도, 모도에 다다른다.
먼 옛날 물참엔 배를 타고 잣감엔 갯벌 위로 건너던 섬은 다리가 놓이면서 하나가 되었다.
세 섬은 하나로 이어도 아담하지만 저마다 다른 아름다움으로 마음에 파고든다.
어느 사월의 봄날, 섬에서 보낸 하루. 그 여행의 기억은,
이 봄이 지나고도 오랫동안 마음에 머무를 것이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섬까지, 뱃길로 십 분

햇살도 바람도 공기도 더 없이 완벽한 사월의 봄날. 영종도 삼목선착장에는 북도면으로 가려는 차들이 드문드문 서 출항을 기다리고 있다. 휴가철이나 휴일이었다면 조금한 마음으로 핸들을 붙잡고 길게 줄을 섰으리라. 기다림은 아주 잠시, 뱃고동 소리와 함께 차가 미끄러지듯 바다 위로 오른다. 여객선이 하얀 물꽃을 일으키며 물결을 가로지른다. 갑판 위에 섰다. 새우과자에 맛 들린 갈매기들이 빙빙 돌며 환영 인사를 한다. 아침 바람이 조금 차지만, 그마저도 기분 좋은 접촉이다.

육지에서 바다 건너 섬에 이르는 시간은 십 분 남짓. 신도(信島), 시도(矢島), 모도(茅島)는 모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 하나와 다름없다. 먼 옛날 물차면 나룻배를 타고, 물 빠지면 갯벌 위로 건너던 섬은 다리가 놓이면서 한 몸이 되었다. 세 섬은 하나로 이어도 아담하지만, 모두 둘러보려면 하루 해로는 짧다.

가장 먼저 만나는 섬, 신도에는 구봉산이 봉긋 솟아있다. 산은 너그려워서 섬 곳곳에 품을 열고 세상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숲은 그늘이 짙고 산세가 나지막해 걷는 맛이 여유롭다. 벚꽃이 탐스럽게 핀 봄이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하다. 쉬엄쉬엄 산길을 오르기를 삼사십 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발자국이 닿는다. 해발 176m 구봉산 정상. 눈앞 가득히 펼쳐진 바다 그리고 바다, 그 너머로 세계의 하늘로 비상하는 인천국제공항이 아스라이 보인다.



본연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바다

신도에서 다리를 건너면 시도에 이른다. 해안을 따라 갯벌이 이어지고 사이사이 시골 마을의 평화와 서정이 흐른다. 이 섬은 드라마 촬영지로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수기 해수욕장에 있던 드라마 '풀하우스' 세트장은 태풍에 무너지고, 언덕 위 '슬픈연가' 세트장은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해 빛바래 가고 있다. 하지만 해변에는 그 아쉬움을 달래고도 남을 풍경이 펼쳐진다. 고운 모래사장이 초승달 모양으로 길게 뻗은 바닷가는 솔솔이 울타리처럼 둘러쳐져 아늑하다. 그 너머로 아득히 펼쳐진 수평선은 잔잔히 아름답다. 휴가철이면 인파로 몸살을 앓는 바다는, 이제야 본연의 아름다움을 하나둘 자아내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바닷가에 복슬복슬한 강아지 두 마리가 엉겨 장난을 친다. 살랑거리는 걸음을 따라가 보니, 바닷가 한편에 자리 잡은 펜션 '풀사이드(Poolside)'에 이른다. 작년 가을에 문을 연 이 펜션은, 도심 한복판의 건물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 모던하고 트렌디하다. 하지만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자연과 잘 어울린다. 카페 창 안으로 푸른 물이 스며들 듯이 바다가 넘실거린다. 그 너머에는 강화 마니산이 손짓을 한다. 지는 해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장화리 해변도 한달음에 닿을 듯 가깝게 보인다. 해변 언덕에서 오른쪽 길을 따라가다 보면, 비밀스레 숨어 있던 염전이 나타난다. 인천에는 이곳 북도면과 백령면에서만 새하얀 소금 꽃이 핀다. 바닷물은 오랜 세월 해와 싸우고 바람을 다독인 후에야, 비로소 하얀 새 숨을 얻는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소금밭 염전. 잠시 숨을 고르고 발걸음을 느리게 움직여 본다. 때마침 창고에선, 수북이 쌓인 천일염을 자루에 담느라 염부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오랜 기다림과 정성으로 빚어낸 육각형의 결정체를 음미해 본다. 달콤 짭조름한 바다 향이 입안에 파문처럼 번진다.



섬, 오래도록 마음을 붙잡다

두 번째 다리를 건너면 모도에 다다른다. 삼 형제 중에서도 가장 작고 조용한 섬이지만 색다른 매력을 품고 있다. 바로 섬 남쪽 바닷가에 다른 세상인 듯 내려앉은 배미꾸미 조각공원이 매력의 중심이다. '초현실주의'를 지향하는 이일호 조각가는, 특유의 감성으로 해변을 하나의 거대한 작품으로 빚어냈다. 휴머니즘과 에로티시즘을 넘나드는 조각 30여 점이 바다와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작업실을 개조한 공원 옆 카페, 차 한잔으로 도회의 거친 삶을 어루만진다. 집으로 가는 길, 시도에 왔으니 북도양조장을 그냥 지날칠 수 없다. 섬에서 유일한 양조장으로 그 역사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쉽게도 양조장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낡은 간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해도 소용이 없다. 2년 전 시도 여행 때는 배덕희(당시 83세) 할머니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40여 년 전 서울에서 이 섬으로 들어와, 양조장의 전통을 30년에서 70년으로 늘려 놓았다고 자랑스러워하셨다. '할머니는 건강히 잘 계시겠지.' 깨끗하면서도 깊은 도촌 막걸리 맛이 입안에서 감도는 듯하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저물어 간다. 육지로 가는 마지막 배가 닻을 내릴 시간이 가까워졌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뱃길로 십 분. 섬은 언제라도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깝지만, 섬을 향한 그리움은 길고도 깊다.



‘삼 형제 섬’에서 보내는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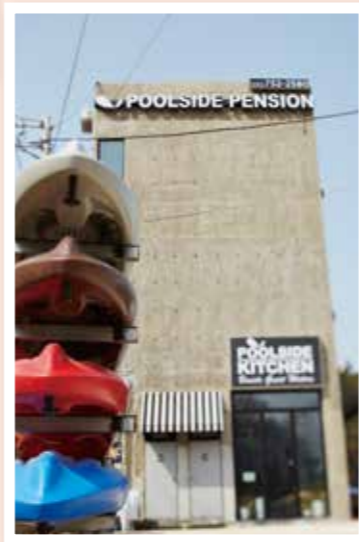
신도와 시도, 그리고 모도는 북도면에 나란히 떠 있는 형제 같은 섬이다.
세 섬이 손을 잡듯 다리로 이어져 있어 하나를 여행하듯 두루 둘러볼 수 있다.
이들 섬은 아담하지만 아기자기한 명소가 곳곳에 숨어 있어,
모두 둘러보려면 하루해가 짧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배미꾸미 조각공원

신도 저수지



수기 해변 풀사이드 펜션



북도양조장



시도염전

추천 여행 코스

신도 도착 → 신도 저수지 → 구봉산 → 연도교(신·시도) → 시도 → 수기 해변
→ 시도 염전 → 잠수도로(시·모도) → 모도 → 배미꾸미 조각공원 → 북도양조장 → 신도 선착장

가는 길

삼목 선착장에 신도로 가는 배가 있다. 오전 7시 10분 첫 배를 시작으로 한 시간 간격으로 오후 7시 30분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6시 10분)까지 운항한다. 배삿은 성인 4천원. 자전거를 가지고 타면 추가로 2천원을 내야
한다. 자동차 도선료는 별도로 2만원.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 신도에서 왕복표를 구매한다. 세종해운 751-2211

섬 내 교통

신도 선착장으로 여객선 도착 시간에 맞춰 마을버스가 운행해 편리하다.

문의 웅진군청 899-2114, 북도면 주민자치센터 899-3410

첫째 섬, 신도

구봉산 너른 품으로 섬을 아우르는 구봉산. 봄, 숲은 생명의 기운을 한껏 받아 싱그럽게 빛난다. 특히 산은 길이 잘 닦여 있어 두 발로 걸어도, 두 바퀴를 타고 올라도 좋다. 중간 중착지인 성지약수터에서 목을 축이며 여행길에 심표를 찍는다. 한 시간 안에 다다른 산 정상, 그리고 바다, 하늘, 그 무위의 공간을 휘저으며 날아오르는 비행기의 날갯짓이 힘차다.

신도 저수지 신도 푸른벚말에 가면 고즈넉한 정취의 저수지가 펼쳐진다. 잔잔한 수면 위로 나무 데크가 길게 이어져 있어 여유롭게 거닐기 좋다. 물가에 이름 모를 야생화와 수변 식물들이 싱그러운 얼굴을 내밀고 있어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 땀을 스치는 바람은 석탑처럼 층층이 쌓였던 고민을 훌훌 날려버린다.

둘째 섬, 시도

수기 해변 한때 드라마 '풀하우스' 촬영지로 유명세를 탔다. 안타깝게도 세트장은 태풍에 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예쁘다. 희고 고운 모래사장이 초승달 모양으로 길게 뻗은 해변은 호수처럼 아늑하다. 수평선 너머로 강화도 마니산의 자태가 뚜렷하다.

풀사이드 펜션 6개월 전에 문을 열었다. 서울에서 한 시간이면 닿을 수 있고 공항 또한 지척이라 외국 손님도 많이 찾는다. 펜션 옆 숲길이나 바닷가를 거닐 때면, 이 집에서 키우는 풍산개 두 마리와 진돗개 한 마리가 풀랑풀랑 따라온다. 해양레저인 카약과 패들보트를 즐길 수도 있다. 카약을 타고 낚싯대를 드리우면 송어가 척척 걸려든다. 밤이면 옥상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즐길 수도 있고, 펜션 앞 캠핑장에서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개 삼아 하룻밤을 보내도 좋다. poolside.co.kr 752-2580

북도양조장 시도에 왔다면 북도양조장을 그냥 지날 칠 수 없다. "막걸리나 한잔 하고 가세~" 힘차게 자전거 바퀴를 돌리던 사람들이 하나둘 양조장 앞에 멈춘다. "문 잠겼는데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네요." 자전거 일행이 아쉬움의 페달을 밟으며 멀어져 간다. 여기서 빛은 도촌 막걸리는 깨끗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이다. 세월이 흐른 댐 고풍스러운 양조장의 모습은 관광객의 단골 기념촬영 장소다. 752-4020

시도 염전 이 작은 섬이 드넓은 염전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강성식(73) 할아버지는 15년 전 태안에서 이 섬으로 들어와, 내리쬐는 태양을 밟 삼아 소금을 굶어모으며 살아왔다. "세상에 귀하디 귀한 게 바로 이 천일염이야. 여기서 난 소금이 전국 각지 안 가는 데가 없어." 평생 소금밭을 일구느라 까맣게 그을린 할아버지가 정성껏 그러모은 소금산 앞에서 새하얗게 웃는다. 010-8535-6461

셋째 섬, 모도

배미꾸미 조각공원 구불구불 좁다란 숲길을 지나 섬 남쪽 끄트머리에 이른다. 오묘하게 귓가에 울리는 음악. 전혀 다른 세상에 온 듯하다. 휴머니즘과 에로티시즘을 넘나드는 이일호 작가의 작품이 해변과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뿜어낸다. 공원 안에는 작업실을 개조한 카페가 있다. 향기로운 꽃차가 있고, 해초 비빔밥이 별미다. 752-7215

타이거 비치 조각공원 옆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휴양 섬. 스페인의 이비스(biza)처럼 춤과 음악이 있는 해변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폴댄스 세계 대회가 열려 여름을 뜨겁게 달궜다. 수영장, 야영장, 공연장 등을 갖추고 여름에 개장한다.

관광 인천, '섬'이 살린다

인천의 섬은 인천의 자산이자 보물이다. 수천 년을 이어온 이야기들이 섬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고, 수려한 풍광과 생태환경을 자랑한다.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인천의 섬들이, 수도권과 가까운 장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인천시는 '섬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역사와 문화, 생활을 배경으로 한 고유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백령도

섬, 인천의 매력으로 재탄생

물치섬 작약도는 관광호텔, 콘도, 청소년수련장, 요트장, 스포츠센터, 워터파크를 갖춘 해양관광단지로 거듭난다. 시는 오는 12월 관광단지 개발에 착수해, 2020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에는 강화 역사문화 돌레길을 만든다. 2016년까지 강화대교부터 초지대교, 석모도 일대에 돌레길을 조성하고, 탐방로, 데크, 쉼터, 포토 존, 조형물을 설치한다. 돌레길을 걷다 보면 덕진진, 광성보, 갑곶돈대 등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유적지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일명 토끼섬으로 유명한 굴업도는 2015년까지 호텔, 요트장, 생태학습장을 갖춘 관광단지로 탈바꿈한다.

연평해전의 아픔이 남아있는 연평도에는 '평화기원 등대언덕'을 조성한다. 북한 접경지대로 긴장감이 맴도는 이곳에 약 10km에 이르는 평화안보 돌레길이 만들어진다. 퇴역 함정을 전시하고 회망전망대를 건립하며, 안보수련원을 리모델링해 관광자원화한다. 서구 세어도에는 자연생태 공공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민가나 폐가에 벽화를 그리고, 예술 조형물을 설치해 예술의 섬으로 재탄생한다.

인천의 섬에는 '색깔'이 있다

우리나라 개신교는 서해 뱃길을 통해 전파됐다. 그래서 인천 섬들은 선교사들의 선교 거점이자 루트였다. 백령도에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인 백령도 중화동 교회가 이런 사실을 대변한다. 복음의 관문이었던 백령도의 역사성을 살려 '백령도 성지순례 상품'을 개발한다. 백령도 1박2일 또는 1박 원도심 투어로 만들며, 백령도 중화동 교회, 강화 교산교회, 부평 성서박물관, 중구 내리교회 등이 순례지로 조성된다. 이 밖에도 강화도 갑곶성지를 중심으로 한 천주교 성지순례, 강화도 전등사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불교유적 관광 상품도 개발이 추진된다. 백령도 물범, 웅진군 시도 저어새,

강화도



백령도

연평도

강화갯벌, 송도갯벌습지, 대이작도 주변해역 등 자연환경을 주제로 한 생태관광 상품도 개발된다. 인천 섬에서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여촌체험 관광 상품도 나온다. 강화 화문석, 강화 갯벌 체험, 덕적도 산나물채취, 낚시투어, 저어새, 함초 채취 체험을 통해 섬 생활을 경험하고, 섬에서 나는 먹거리로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공항철도와 연계한 무의누리 바다열차 상품은 공항철도를 타고 섬을 체험한다. 무의누리 도보당사, 무의도·시도 트레킹, 마시란 해변 갯벌체험, 거참도 해돋이를 감상한다.

"인천 섬으로 오세요" 관광 마케팅 총력

인천 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들의 단체 관광상품에 다양한 지원을 한다. 관광객 1인당 6천 원씩을 지급하고, 1박당 2천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여행사의 관광상품 중 우수여행 상품을 연 2회 지정해 '인천시 선정 우수상품 인증'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선사, 숙박업체와 공동으로 교통, 숙박, 여행을 한데 묶어, 개별 가족 여행객을 위한 패키지 상품 '인천 페리텔'을 개발할 예정이다.

10개 인천 섬의 주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담은 버킷리스트 '10도10색'을 선정하고, 6월까지 홍보물로 제작해 배포한다.

인천 섬, 서울에서 홍보

제아무리 관광상품을 잘 개발했어도 홍보가 받쳐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인천시는 인천 섬 관광 세일즈를 위해 내년 5월 중 서울광장, 광화문, 청계천광장 중 1곳에서 홍보전을 연다. 올해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은 코엑스에서 열리는 '포토엔트레벨 2015' 행사에 참가해 사진이 아름답게 나오는 섬, 캠핑 관광에 좋은 인천 섬을 홍보하고, 섬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로 홍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봉우리에 하얀 꽃눈 쌓였네

살짝 발만 들어도 풍경은 달리 보인다. 까치발을 하면 보이지 않던 부분이나 지형이 눈에 들어온다. 평지에서 바라보던 거리와 동네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모습일까. 위성은 너무 멀고 헬리캠(helicam)이나 드론(drone)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올라갔다. 건물 옥상이나 교회 종탑에 올라 인천을 굽어보았다. 그 정도 높이임에도 인천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이번 호에서는 하버파크호텔 옥상에서 응봉산(자유공원) 남쪽 기슭을 바라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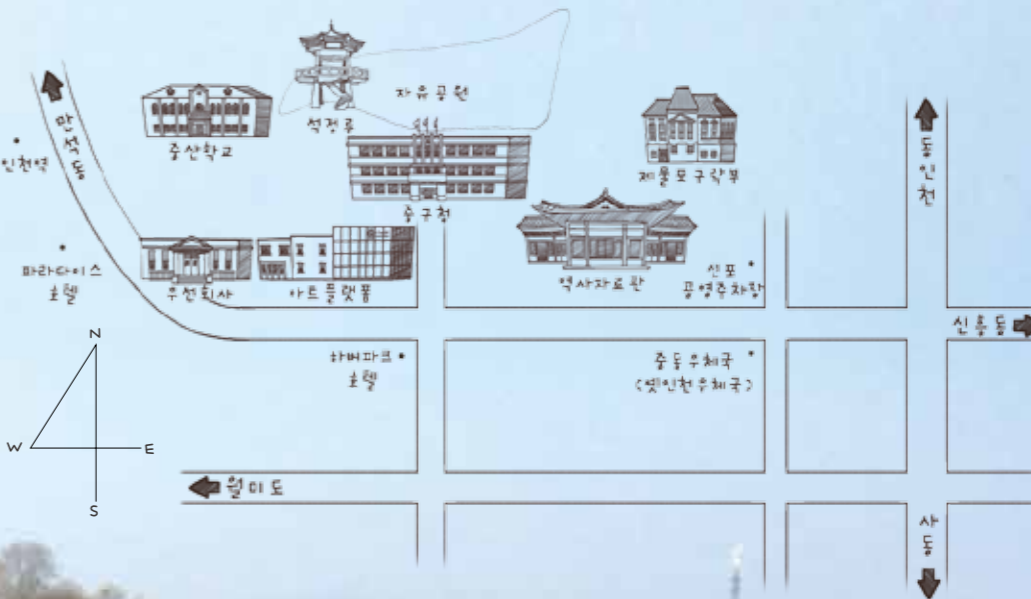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 ① 한성임시정부 선포 ② 석정루 ③ 국제복음주의방송국 ④ 제물포구락부(중구문화원)
⑤ 인천시역사자료관 ⑥ 중구청(인천부청) ⑦ 대불호텔 터 ⑧ 인천아트플랫폼 ⑨ 인천우선회사 ⑩ 중산학교



까치발을 든 지점 | 하버파크호텔(중구 제물랑로 217)

아 이러니하다. 자유공원을 한눈에 보기에 이만한 장소가 없다. 그런데 이 건물은 조망권을 방해한다. 자유공원에서 인천항과 바다를 바라볼 때 이 건물이 3분의 1을 가린다. 시야가 참 답답하다. 왜 이런 자리에 이런 건물을 올렸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이 호텔에 오르면 자유공원, 월미도 그리고 인천항이 가깝게 잘 보인다. 이런 이유 하나로 이 호텔 15층에 있는, 사방이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뷔페레스토랑을 찾는 사람도 있다. 원래 호텔이 들어서기 전에는 경기도경찰국(후에 인천경찰청)이 있었다.



자유공원은 1888년 해발 69m의 자그마한 야산 응봉산(또는 응암산)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다. 한때 '만국(萬國)공원'이라고 했다. 4월이 되면 자유공원은 은빛 세상이 된다. 산책로에 줄지어 선 아름드리 벚꽃나무가 유명한데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심은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1975년 인천라이온스가 일본 나가사키, 기타큐슈 등 자매 클럽의 도움으로 3년간 1천주의 벚나무를 심었다. 개항 후 조계지가 설정돼 공원 밑이 중국인 동네(앞 페이지 사진 왼쪽)와 일본인 동네로 나뉘었다.



1 석정루 2 옛 극동방송 3 제물포구락부 4 화교학교 5 우선회사 6 대불호텔(오른쪽 건물) 7 인천아트플랫폼 내부

① **한성임시정부 선포** : 이 공원은 제국주의의 산물로서 휴식과 위락 공간의 역할에만 그치지 않았다. 1919년 4월 2일 만국공원에 일제의 감시망을 뚫고 비밀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규갑, 이종욱, 안상덕 등 13도 대표들은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만천하에 선포할 것을 결의한다. 바로 상해 임시정부의 모태가 된 '한성임시정부'다. 독립정부를 수립하려는 의지를 가진 여러 독립운동가가 모인 최초의 회합이다. 만국공원의 역사성을 제국주의 시대 건축물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조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② **석정루** : 목재업과 조선소로 큰돈을 벌었던 이후선 씨는 30여년간 자유공원을 산책하며 건강을 지켜온 데 대한 보상으로 1966년 시민의 휴식처가 될 2층 누각을 지어 인천시에 기증했다. 출생지가 월미도였던 연유로 그는 월미도를 바라볼 수 있는 공원 서쪽 언덕바지를 누각의 위치로 정했다. 누각 이름은 주변의 강권으로 자신의 아호를 딴 '석정루(石汀樓)'라 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친 인천 출신 서예가 박세림 선생이 현판 글씨를 썼다.

③ **국제복음주의방송국** : 석정루 아래 '오리고기 전문점' 자리에는 국제복음주의방송국(현 극동방송국)이 있었다. 1956년 극동지역 선교방송인 국제복음주의방송국은 학익동 갯벌 위에 송신 안테나를 세우고 1962년 이 자리에 연주소와 스튜디오를 마련해 특

수 방송시대를 연다. 1967년 극동방송으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 마포구 상수동으로 이전한다. 이후 웨딩홀, 레스토랑 등으로 사용되었다. 개항기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은 장소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화도진이나 파라다이스호텔이 아닌 이 자리라는 주장이 최근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④ **제물포구락부(중구문화원)** : 1901년 러시아인 건축가 사바친의 설계로 세워진 양철지붕의 서양식 건물이다. 1913년까지 독일, 영국, 러시아, 미국 등 서양인들의 사교장으로 사용되었다. 내부에는 사교실, 도서실, 당구대 등이 있었다. 서양인들이 보름마다 식사를 겸한 무도회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다. 6.25 전쟁 후 시립박물관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 건물이 다시 유명세를 탄 것은 김하늘과 고수가 출연한 2001년 드라마 '피아노'의 무대였기 때문이다. 현재는 중구문화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⑤ **인천시역사자료관** : 일제강점기에 중앙동 4가에서 잡화상을 운영했던 일본인 사업가 코노의 별장으로 사용되었고, 광복 후에는 '송학장'이라는 댄스홀로 사용되기도 했다. 1966년부터 인천시장 공관으로 활용되다가 현재는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으로 사용 중이다.

⑥ **중구청(인천부청)** : 1883년 일본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세운 건물(목조 2층)로, 인천 최초의 양관이다. 인천부청은 1933년 목조 건물을 철거 2층짜리 벽돌 건물을 지었는데 50개의 방과 증기 난방시설, 수세식 화장실도 갖췄다. 광복 후 3층으로 증축돼 인천시청으로 사용되었다. 1985년 시청이 현재의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전하자 중구청이 입주해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등록문화재 249호로 지정됐다.

⑦ **대불호텔 터** :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호텔이 있던 자리이다. 대불호텔은 1888년에 건축한 호텔로 객실 수는 총 11개에 불과했으나 개항기 외국인이 자주 이용했다. 건립 연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1888년 호리리키 다로가 벽돌 건물로 지었다는 설과, 아펜젤러가 1885년 제물포를 방문했을 당시 대불호텔에 묵었다는 비망록을 근거로 신축되기 이전에 일본풍의 대불호텔이라는 이름의 호텔이 있었다는 의견이다. 개점 이후 성황을 누렸지만 경인철도가 개통되면서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됐다. 중국인에게 매도되어 중국음식점인 '중화루'로 사용되다가 1978년에 철거되어 현재는 빈 터만 남아 있다.

⑧ **인천아트플랫폼** : 지난 2009년 100년 세월을 담은 창고와 사무실 등이 예술창작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대한통운 창고 등 인천항 하역물품을 보관하던 옛 창고를 비롯해 1930~40년대에 건설된 삼우인쇄소, 피카소 작업실, 영광수퍼, 대진상사, 양문교회 건물 등을 리모델링해 하나의 회

랑으로 연결했다. 허물지 않고 재활용한 네 채의 벽돌 건물과 새로 지어진 붉은 벽돌조의 건물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시간이 공간을, 공간이 시간을 연결하며 창작스튜디오, 공방, 자료관, 교육관, 전시장, 공연장 등 총 13동 규모로 조성되었다.

⑨ **인천우선회사** : 인천아트플랫폼 리모델링 작업 중 이 건물은 국내에 현존하는 근대건축물 가운데 사무소 건축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전까지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건축 시기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보수공사 도중 건물 내 트러스의 왕대공에 설치되어 있던 상량판이 발견되었다. 상량판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건축연대가 1888년 9월에서 12월 사이로 추정된다. 현재 시 등록문화재 248호로 지정돼 있다.

⑩ **중산학교** : 인천화교학교의 정식 명칭은 인천화교중산중·소학교(仁川華僑中山中·小學校)이다. 중산학교가 설립된 것은 1901년이다. 처음 학교 문을 열었을 때는 초등학교 과정인 소학교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한국 화교 학교교육의 효시이다. 1946년에 주안분교, 1951년에 용현분교와 부평분교가 설립되었다. 그곳 분교에서 3학년까지 마치고 4학년 과정부터는 북성동 본교로 가서 공부했다. 운동장 한편에 세워진 국기 게양대에는 대한국기인 청천백일기(靑天白日旗)가 휘날리고 있다. 1992년 8월 우리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수교하고 중화민국(대만)과 단교했지만, 화교 학교는 여전히 대만 정부의 소유이다.

“찰칵, 그렇게 시간이 순식간에 갔어요”

그는 4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을 오로지 카메라 셔터만 누르며 지냈다. 그가 찍은 사진들은 이제 인천의 과거를 담은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심영보(59) 씨는 인천시 시절 김태호 시장부터 광역시의 현 유정복 시장까지 역대 시장 17명의 활동을 전담해서 촬영했다. 그는 지난 2월, 공직을 마무리하며 38년 5개월 동안 분신과 같은 카메라를 손에서 내려놓았다.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글 유동현 본지 편집장



1976년 9월 3일 그는 인천시와 인연을 시작했다. 시청 사진 기사가 정년으로 자리가 났다. 충남 부여가 고향인 그는 충남 직업기술학교를 다니며 '사진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 '쫓' 덕에 쉽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

처음 그에게 주어진 공무원 신분은 이름도 생소한 '잡무수'였다. 그때부터 그의 카메라는 인천의 '현장'과 그 현장에 있는 '시장'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은 26명의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간 1990년 송림동 부처산 산사태, 54명의 꽃다운 청춘이 화마에 희생된 1999년 인현동 화재사건 등이다.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기억이 있다. 1986년 주안 시민회관 인근에서 벌어진 인천 5·3 민주화항쟁 때의 일이다. 건물 옥상에서 경찰과 한 조가 돼 망원렌즈로 시위대 채증(採證) 사진을 찍고 있었다. 갑자기 옥상으로 통하는 철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위대 일부가 사진 찍는 것을 알고 달려온 것이다. '이젠 죽었구나' 하고 공포감에 떨었지만 다행히 문이 열리지 않아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난다.

사진 작업은 늘 긴장의 연속이다. 요즘처럼 바로 확인하고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카메라가 아닌 필름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스트레스가 아주 심했다. 찍고 있어도 혹시 헛방을 찍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빛이 들어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떠나질 않았다. 현장에서 돌아와 밤새워 시청 구석방에 마련된 암실에서 인화를 하고 나서야 한숨을 돌렸다. 그러곤 다시 신문사로 달려가 기자들에게 사진을 전달했다. 급할 땐 시장

전용차까지 이용했다.

지금 생각해도 오싹한 기억이 있다. 1980년 대 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인천시청을 초도순시했다. 물 썰 틈 없는 경호로 현장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살벌했다. 사진기 내부를 살살이 살펴보고 플래시도 미리 터트려 보았다. 필름은 경호원 바로 앞에서 끼도록 했다. 행사 후 지역구 의원들이 선거용으로 쓰기 위해 대통령과 함께 각각 기념사진을 찍는 순서가 있었다. 순조롭게 사진을 찍던 중, 모 국회의원이 눈을 감은 것 같아서 별생각 없이 "다시 한 번 찍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순간 옆에 있던 경호원이 다짜고짜 그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나갔다. "너, 이 ×× 죽을래?" 거친 육두문자가 쏟아졌다. 한동안 그는 카메라 드는 게 두려웠다.

시장을 수행하면서 사진을 찍다 보니 지구촌 곳곳을 누빌 기회가 많았다. 평양과 뉴욕 유엔본부도 다녀왔으니 이 세상에서 안 가본 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공무원 신분도 고용직, 기능직, 별정직, 전문 경력관으로 바뀌었다. 그렇지만 시청에서 그의 호칭은 언제나 '심 반장'이었다.

"여태껏 꿈속에서 시장님 한번 본 적이 없는데, 어젯밤 꿈에서 유 시장님을 뵈었어요."

극구 사양하는 것을 강권하다시피 해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심 반장은 뜬금없이 꿈 얘기부터 꺼냈다. 한창 일할 땐 시장 꿈을 꾸지 않는 그가, 은퇴한 뒤 꿈속에서 시장을 다시 만나고 있으니 그는 여전히 '현역'이다.



5

인천시립극단 교사와 함께 공연하는
뮤직드라마 '한여름밤의 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7시 30분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420-2790

9

인천시립무용단 기획공연 제26회 I-Dance
'단원작가전-여성작가 3인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전석 1만원
☎1588-2341

10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44회 정기연주회
'Great 시리즈II'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1588-2341



연희컴퍼니 유희 '유희노리'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5천원
☎505-5995

11

가족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3만원
☎1599-9354

14

봄맞이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VIP석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429-0248

15

제20회 락음악악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초대
☎031-829-0414

해설이 있는 시네마 음악회 '터치 클래식'

부개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5천원
☎507-5996

16

서봉국, 윤희석과 함께
음악 토크 '황홀한 이웃'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브런치 타임), 11시(공연)
1만5천원
☎580-1163

17

제35회 장애인의날 기념 한마음 축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초대
☎438-0420

18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5천원
☎1544-3901

애니메이션 상영 '행복배달부 팻아저씨'

인천평생학습관 다목적강의실
오후 2시
무료
☎899-1567



이원국 발레단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4시
6천원, 학생 무료
☎760-3457

19

제55주년 4.19혁명 기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초대
☎440-2972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5천원
☎1544-3901

22

제4회 러시아의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02-583-6295

복합뮤지컬 '꾸러기 만세, 애벌레의 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30분
2만원(단체 1만원)
☎02-2654-6854

23

스칼라 오페라 합창단이 선사하는
'Spring Concert'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888-9911

25

브런치 콘서트
'음악으로 만나는 셰익스피어'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1만 5천원
☎500-2000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R석 5만5천원, S석 4만5천원
☎1566-6551, 010-5322-6304

코리아기타오케스트라의
제10회 기타이야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전석 1만원
☎833-2080

26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R석 5만5천원, S석 4만5천원
☎1566-6551, 010-5322-6304

29

제33회 라이온스 지구연차대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1시
초대
☎887-7971

2015 커피콘서트 4
백주영&랄프고토니 듀오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천원
☎1588-2341

마티네 콘서트 '마실'

남동소래아트홀 소공연장
오전 11시
무료
☎453-5710

별문아트와 함께하는 맛있는 매직버블쇼

부개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5천원
☎507-599

30

제125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축하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30분
초대
☎437-8501~3

인천가톨릭대학원, 도사-사람전2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4월 20일



4월 8일~4월 20일	인천가톨릭대학원, 도사-사람전2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4월 8일~4월 20일	이정근 도예전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4월 10일~4월 16일	제35회 인천수채화협회 정기전 및 교류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4월 10일~4월 16일	인천구상작가회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4월 15일~4월 26일	화양연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4월 17일~4월 23일	신수경 개인전 3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4월 17일~4월 23일	삶의 사색전 II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4월 22일~4월 30일	인천문인화작가회전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4월 22일~4월 30일	손목광,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4월 22일~5월 4일	김보성 사진전 '연평도의 바위'	성광갤러리
4월 24일~4월 30일	제11회 명재향 개인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4월 24일~4월 30일	청람전도진 서예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4월 30일~5월 31일	현대미술 'Wonderland, Neverland'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이 달의
展

인천시립교향악단 2015시즌 첫 번째 프로젝트 ‘Great’시리즈

2015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Great 시리즈’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선택한 작곡가 시벨리우스, 차이콥스키, 그리고 닐센의 대표적인 교향곡을 한국을 대표하는 마에스트로의 해석으로 감상하는 시간이다.

4월에는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전임 지휘자인 장윤성의 지휘로 교향시 ‘핀란드야와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을 연주한다. 또한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과 함께 연주하는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감상할 수 있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은 이 공연을 통해 올해 탄생 150주년 되는 시벨리우스와 닐센의 탄생을 기념한다.

인천시립교향악단 344회 정기연주회 Great Series II

일정 4월 10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1층) 1만원, S석(2층) 7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인천시립극단과 교사들이 함께 만드는 연극

인천시립극단이 창단 25주년을 맞아 교사와 함께 공연하는 뮤지컬드라마 ‘한여름밤의 꿈’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에는, 시립극단이 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한 ‘교사 연극 워크숍’을 통해 선발된 교사들이 배우로 함께 참여한다.

극의 배경은 미래 사회의 어느 자동차 공장이다. 기계화에 밀려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이 회사의 처분을 기다리는 가운데, 무료하고 초조한 시간을 견디려 시작한 뮤지컬 ‘한여름밤의 꿈’. 하지만 뮤지컬이 한창 무리지어 끝을 향해 갈 즈음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들이닥친다. 텅 빈 공장에 남아, 결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그들만의 꿈을 위해서 뮤지컬의 마지막 장면을 만들어간다.

인천시립극단 25주년 기념 기획공연 ‘한여름밤의 꿈’

일시 4월 3일(금)~5일(일) 오후 8시

평일 오후 7시 30분

토, 일 오후 3시,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1588-2341



세 명의 젊은 여성안무가들이 몸으로 전하는 이야기

재능 넘치는 인천시립무용단 단원들의 안무작을 만나 볼 수 있는 제26회 I-Dance ‘단원작가전’이 열린다. 한국 창작 춤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전통 춤의 정제된 모습에서 벗어나 단원들의 개성 넘치는 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다.

각자의 개성과 가치관을 인정하는 않는 세상에 대한 비판을 담은 윤지영 단원의 ‘으흠...’,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가면성 우울증)을 소재로 진실된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전미란 단원의 ‘오늘 그리고 내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매개인 ‘말’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춤으로 표현한 ‘숨바꼭질’ 등 자유로운 사고에서 비롯된 다양한 주제의 창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인천시립무용단 제26회 I-Dance ‘단원작가전 – 여성작가 3인전’

일시 4월 9일(목) 오후 8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1만원

문의 1588-2341

젊음과 원숙함이 만들어내는 절정의 연주

수요일 오후 2시 향긋한 커피와 함께 1만 5천원으로 멋진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커피콘서트’.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해가 거듭될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4월 커피콘서트는 현존하는 최고의 작곡가 펜데레츠키로부터 ‘안네 소피 무터의 뒤를 이을 바이올린의 여제’ 라고 극찬을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4년마다 뛰어난 피아니스트에게 주어지는 ‘길모어 아티스트 어워드’ 수상자인 피아니스트 랄프 고토니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열정적인 연주력을 지닌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와 원숙미를 풍기는 거장 피아니스트가 절정의 공연을 보여줄 것이다.

커피콘서트Ⅳ 백주영 & 랄프 고토니 듀오콘서트

일시 4월 29일(수) 오후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1만5천원

문의 1588-2341



가족 간의 소통, 합창으로 풀어낸다

내 목소리를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자신의 소리를 맞춰나간다. 혼자라면 떨어지는 상황도, 서로 의지하며 함께하면 자신감이 솟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배려가 한목소리로 울려 퍼질 때 ‘우리는 하나’라는 감동을 비로소 가슴 가득 맛보게 된다.

정리 김윤경 시 인터넷신문 I-View 편집위원



몇 해 전, ‘남자의 자격’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합창단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방영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이끌어 낸 적이 있다. 노래는 누구나 잘할 수 있지만, 합창은 조금 다르다. 합창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어우러짐을 수용할 때 비로소 본래의 의미인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끝없는 과정 끝에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화음... 이런 멋진 경험을 가족과 함께 나눈다면 어떨까?

부평구문화재단의 공연 연습실은 주말마다 합창 연습으로 분주하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최근 부평 하모니프로젝트 ‘소리를 더하다’에 참여할 가족합창단을 모집했다.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배우고 싶은 가족 59명이 뭉쳤다. 여덟 살 초등학생부터 머리가 희끗한 일흔살 어르신까지 참여한 가족합창단은 매주 하나의 소리를 내기 위해 마음과 목소리를 더한다.

개인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요즘 가정. 부평 하모니

프로젝트 ‘소리를 더하다’는 음악을 통해 가족 간의 화합과 이해의 장을 만들어주고자 시작했다. 가족과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는 사이에 마음으로, 눈빛으로 소통은 이루어진다.

가족합창단은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Sound of music)’의 삽입곡 ‘도레미송’ 에델바이스와 같은 곡들을 재미있는 동작과 함께 익힌다. 오는 5월 ‘부평키즈페스티벌’과 ‘로비음악회’ 오프닝 무대에 설 예정이다. 부평문화재단 담당자는 “가족합창단을 통해 가정의 소통 단절을 극복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마음을 열고 즐길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관계가 돈독할수록 가족의 힘은 위대해질 것이다.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면, 7월에 모집하는 2차 가족합창단에 지원해보자. 합창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

문의 부평구문화재단 ☎500-2073



‘인천경제청 홍보관’ 송도 G타워에 오픈

360도 조망, 체험기능 강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 유치에 기여할 홍보관이 지난달 24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33층에 문을 열었다. 인천경제청이 사업비 21여억원을 들여 6개월 만에 완공한 홍보관은 서해바다와 송도국제도시 전체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어 일반인과 주요 인사들이 많이 찾는 IFEZ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6월 송도갯벌타워 21층에 문을 연 IFEZ 홍보관은 2010년 컴팩 스마트시티관 3층의 임시 홍보관으로 이전했으나 전망대와 떨어져 있어 이번에 새로 개관했다. 홍보관 개관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관람객은 28만여명이다. 홍보관은 84인치 멀티비전 4대가 바다에서 땅으로 변화하는 IFEZ의 역사를 모션 그래픽으로 표현하고 있다. IFEZ에 대한 궁금증을 유도하는 ‘인트로 존’, 인천 근대역사와 주요 사건을 연도별로 분류해 이미지와 자막으로 소개하는 ‘IFEZ의 역사’, IFEZ의 배경, 장점과 경쟁력, 비전 등을 알려주는 ‘IFEZ의 어제’, ‘IFEZ의 오늘’, 유비쿼터스 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IFEZ의 내일’, 투자상당실, 휴게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홍보관은 오전 9시~오후 6시, 토·일요일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운영하며 관람을 원하는 사람과 단체는 전화(☎453-7882) 또는 IFEZ홈페이지(www.ifez.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872

영상컨퍼런스룸에서 ‘해외 비즈니스’

우리는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비즈니스센터 내에 영상 컨퍼런스룸을 운영한다. 영상 컨퍼런스룸은 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에서 거래망을 구축한 유력 바이어와 영상회의로 사전 상담과 추가 상담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상 컨퍼런스룸은 아랍에미리트(UAE)·베트남·인도 등 12개국 해외 자문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한다. 영상 회의에서는 샘플과 자료 확인이 가능하며, 언어능력과 수출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도 통역과 행정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계약 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시 산업진흥과 ☎440-4283

한 달에 한 번 ‘시민데이트’



우리는 시정 목표인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과 다양한 대화 채널을 마련, 시행한다. 우선 비정기적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재하던 ‘시민과의 대화’를 ‘시민 희망데이트’로 정례화해 매월 1회 넷째 주 목요일에 운영한다. 시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자를 받아 민원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회별 4건 이내에서 참석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에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첫 번째 ‘시민 희망데이트’를 개최했다. 또 시장이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답을 찾는 ‘현답 시장실’도 분기마다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 희망데이트와 현답 시장실을 활성화, 시민의 제안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며 시민을 위한 책임행정을 수행할 방침이다.

문의 자치행정과 ☎440-2424



국내 첫 인공 해수로 ‘송도센트럴파크’ 수질 양호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수로의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센트럴파크 수질의 클로로필-a 농도가 이달 초 4.9mg/m³로 ‘1a등급(매우 좋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송도센트럴파크는 2009년 완공된 국내 첫 해수공원으로, 송도국제도시 중심부에 37만m² 규모로 조성됐다. 인공수로는 약 4km 거리의 서해 바닷물을 끌어들이어 해수 처리시설에서 3단계 정수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어종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송어·망둥어·새우 등도 서식하고 있다.

문의 인천보건환경연구원 ☎440-5522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15년 탄소발자국 우수 아파트를 모집한다.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은 사람의 활동이나 상품을 생산, 소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말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8개 구 1천23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참여 아파트를 모집한다. 또 오는 11월까지 참여 아파트별 전기·수도 사용량 감축률,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기후변화 교육 참여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12월에 우수 아파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탄소발자국 우수 아파트에 총 4천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시 녹색기후정책관실 ☎440-8583

‘탄소배출 감축’ 우수 아파트 뽑는다

우리는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9일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조례상 인천지역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은 1983년 이전 준공 건축물이 20년, 1984~1993년 준공 건축물은 22~40년, 1994년 이후 준공 건축물은 40년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재건축 연한은 1983년 이전 준공 건축물은 현행 그대로 20년을 유지하지만, 1984~1988년 준공 건축물은 22~30년, 1989년 이후 준공 건축물은 30년으로 단축된다.

문의 시 주거환경정책과 ☎440-344

재건축 연한, 30년 이하로 줄어

인천 지역 도금 관련 업체들이 입주하게 될 ‘인천표면처리센터 건립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는 최근 인천표면처리센터 부지인 서구 오류동 1610-1에 대한 사업시행사와 인천도시공사 간 토지공급계약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인천표면처리센터는 대지면적 2만3141m², 연면적 12만9123.59m²,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된다. 216실의 공장과 108실의 기숙사, 지원시설, 연구실, 실험실, 회의실 등의 공용시설이 들어서며 폐수처리설비, 대기환경설비 등 공동방치 시설이 계획돼 있다. 센터는 2013년 8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받아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중순경 착공식을 열 예정이며, 5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후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시 산업진흥과 ☎440-4287

인천표면처리센터 건립 본격화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문 열어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이 지난달 11일 개장했다. 연수구 선학동에 자리 잡은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3천415㎡, 3천206석 규모다. 2012년 3월 착공돼 333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빙상경기장은 바다 위에 떠있는 방하를 모티브로 설계됐다. 지난달 11일 개장행사에서는 피겨 국가대표 선수들의 시범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제57회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종별선수권대회도 11일부터 15일까지 이곳에서 개최됐다. 문의 시 체육진흥과 ☎440-4094

‘교통안전·복지 프리미어시티’ 꿈꾼다

우리는 교통지수를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복지 프리미어시티’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 시는 교통 약자 보호구역 시설개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생활도로구역 지정 등 5개 분야 34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총 91억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인천 지방경찰청·시교육청 등 38개 관계 기관·단체로 ‘교통안전 네트워크’를 구성해 교통안전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교통문화지수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적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6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5위로 역시 적은 편이었다. 문의 시 광역교통정책관실 ☎440-3865

인천지하철 2호선, 6월부터 시운전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 1년여를 앞둔 오는 6월부터 종합 시운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 도시철도본부에 따르면 2호선은 정거장과 본선 구조물 공사를 마쳤으며, 현재 건축·전기·기계설비·궤도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 도시철도본부의 한 관계자는 “공사와 시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해 예정대로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서구 오류동~시청~남동구 운연동 차량기지 구간에 27개 역사로 지어진다. 1편성에 2량씩 37편성 74량이며, 운행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에 3분, 평소엔 6분이다. 문의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451-2743

송도국제도시에 영국 기업 첫 입주



송도국제도시에 영국 기업 처음으로 자동차 부품 생산 연구시설이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3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영국 기업인 헬러만타이툰 회사의 자동차 부품 생산·연구시설 착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식산업단지 내 부지 4천160.4㎡에 총 투자비 144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1933년에 설립된 헬러만타이툰사는 전 세계 34개국에 지회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2013년 기준으로 매출액 8천310억원, 종업원 3천300여 명이며,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372



“아파트 민원상담, 이제 직접 찾아갑니다”



우리는 4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아파트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민간 전문가와 건축계획과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상담사들은 아파트를 돌며 공동주택 관련 법령, 관리규약에 대한 사항,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 해소법, 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4월 중구·동구, 5월 서구·계양구, 6월 남구·부평구, 7월 연수구·남동구 지역 아파트를 방문하고, 8~11월 다시 같은 순서로 아파트를 돌며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시 건축계획과 ☎440-4748

‘생생 시정 바로 알기’ 견학 신청하세요

우리는 인천 곳곳의 주요 현장과 시설을 견학하고 체험하는 ‘생생 시정 바로 알기’ 견학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G타워·인천국제공항·송도컨벤시아·강화역사박물관 등 41개 견학대상지를 9개 코스로 나눠 운영한다. 15명 이상 단체라면 원하는 견학 날짜와 코스를 정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견학 참가자는 시민 서포터스의 인솔 아래 시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견학지를 방문하게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시 자치행정과 ☎440-2425

우리는 우수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구축, 7월 개통할 계획이다. 시는 6월까지 지역 내 우수 음식점 1천265곳 중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소개, 주요 메뉴 가격, 음식재료 원산지 표시, 영양성분, 할인쿠폰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해 모바일 웹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시는 맛이 없거나 비위생적인 식당도 인터넷상에서 맛집 또는 모범 음식점으로 소개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 현장 실사를 거쳐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우수 음식점 모바일 웹 구축으로 시민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음식점업소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 조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시 위생안전과 ☎440-2762

맛집 정보 모바일 웹, 7월 개통

우리는 인천의 산 중 자살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계양산에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표지판’을 설치했다. 시는 자살 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계양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하늘재 쉼터, 운무정 돌계단 입구, 임학공원 등산로 등 계양산 3곳에 생명사랑 표지판을 설치했다. 표지판에는 ‘당신이 있어야 우리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생명 지켜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시 자살예방센터 24시간 상담 전화번호(☎1577-0199)가 적혀 있다. 인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지역 산에서 발생한 자살 관련 출동 건수는 33건이며 이 중 21건이 계양산에서 발생했다. 문의 시 건강증진과 ☎440-1584

계양산에 ‘생명사랑표지판’ 설치



“23년째 교통정리로 ‘초심’ 지킵니다”

■ 박승희 인천광역시의회 제1부의장

박승희 제1부의장(서구 제4선거구)은 다선 의원이다. 구의원 3선과 시의원 3선의 관록을 갖고 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밀바닥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시의원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박 부의장이 3선 시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밀바닥 민심의 승리’라고 여겼다.

박 부의장은 ‘약속’을 지키는 시의원으로 명성이 높다. 23년째 서구 가정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정리를 해오고 있다. 23년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해오는 일이다. 자동차 판매 영업소를 운영하던 시절,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보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시작한 일이다. 당시 초등학생들과 정치인이 되어도 교통정리만큼은 꼭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지금껏 지켜오고 있다. 박 부의장에게 ‘교통정리’는 초심을 다잡고 겸손을 새기는 일이다.

박 부의장은 올해 의정활동의 방점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찍고 있다. 인천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방법은 투자유치뿐이라는 생각이다. 자비를 털어 중국 투자자들을 만나고 인맥을 넓히고 있다. 현재 한중경제문화교류중심 회장을 맡고 있고, 얼마 전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민간협의기구’ 설치를 위해 박 부의장 주도하에 투자유치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투자유치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의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박 부의장은 시의원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물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을 만들어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의 판로를 열어준 것이다. 또 2009년에는 6.25 참전용사 지급수당 조례를 제정해 국가를 위해 헌



신한 사람들이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박 부의장은 보훈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박 부의장은 인천도 인구 300만 시대를 맞아 행정의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적인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면서 인천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것. 원도심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인하대가 용현동에 남기로 한 것은 지역을 위해 잘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시민과 감동 있고 진정성 있는 만남을 위해 오늘도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즉문즉답 – 私私로운 이야기

가장 좋아하는 인천의 장소는?

↳ 월미도와 자유공원, 서구 경서동의 녹청자도요지가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외지사람들이 인천을 방문할 경우, 꼭 방문할 세 곳을 추천해주세요

↳ 청라국제도시, 우리나라 최초 근대공원인 자유공원과 차이나타운, 월미도를 권하고 싶습니다.

취미 활동은?

↳ 특별한 취미는 없습니다. 예전엔 배드민턴과 마라톤을 했는데, 지금은 걷기로 운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영화를 보셨나요. 감동적인 장면이나 대사가 있나요?

↳ 국제시장을 봤습니다. 동시대를 겪은 세대이기에 공감도 되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애장품이 있으신가요?

↳ 도자기를 좋아합니다. 도자기에 그려진 동양화도 좋고 그윽한 향기를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올해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 집안이 두루 편안했으면 합니다.



“‘BMW’ 타고 시민의 소리 챙기겠습니다”

〈버스·지하철·걷기〉

■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제2부의장

이용범 제2부의장(계양구 제3선거구)이 사랑하는 차는 ‘BMW’이다. 의정활동 대부분을 BMW를 타고 다닌다. 이 교통수단 때문에 일상에서 시민들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볼 수 있고, 아침마다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가 애용하는 BMW는 독일제 고급차가 아닌 버스(Bus), 지하철(Metro), 그리고 걷기(Walk)다. 의정활동의 원칙을 현장에 두고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겠다는 의지로 표현할 수 있다.

재선 의원인 이 부의장은 나이 때문에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고 겸손해한다. 하지만 누구도 이 부의장이 나이 때문이 아닌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의 아픈 곳, 어려운 곳, 힘든 부분을 해결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계양구에 있는 안남중학교는 급식실이 없어 교실에서 아이들이 배식을 하다 사고가 일어났는데 교육청의 예산확보를 통해 급식실을 조성했고,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던 계산동 부내경로당은 특별교부금 5억을 확보하여 새로 건물을 건립할 수 있었다. 이 부의장은 시민들의 민원해결도 앞장섰다. 계산역~인천공항을 운행하는 302번 버스는 첫 출발이 5시인데 주민들은 4시부터 300m 이상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 부의장은 시 버스정책과와 정책조율을 통해 4시 30분으로 첫차 시간을 조정하기도 했다. 이 부의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으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서구 주경기장 건설의 국고 지원을 받고자 1백만 서명운동을 제안하고 국회 앞에서 한 달간 1인시위 한 것을 꼽았다. 그만큼 인천의 재정이 어려웠기에 시의원으로서



즉문즉답 – 私私로운 이야기

가장 좋아하는 인천의 장소는?

↳ 계양산 둘레길과 인천대공원의 벚꽃과 단풍, 을왕리의 멋진 야경을 좋아합니다.

외지사람들이 인천을 방문할 경우 꼭 방문할 세 곳을 추천해주세요

↳ 송도국제도시와 인천대공원, 을왕리해수욕장, 차이나타운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시는 취미활동이 있나요?

↳ 취미활동은 없고요. 3월부터 경인여자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영화를 보셨나요. 감동적인 장면이나 대사가 있나요?

↳ ‘국제시장’ ‘세시봉’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요’ 등을 봤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영화는 ‘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요’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 저는 10남매의 셋째입니다. 우리 가족, 89세이신 어머님, 형제들 모두 잘되고 건강했으면 합니다.



“관광 살아나야, 인천 재정이 산다” 인천미래관광발전연구회 전체회의 열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미래관광발전 연구회(대표 허 준 의원)가 지난달 18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연구회 소속 의원(유일용, 공병건, 박영애, 황흥구, 유제홍, 정창일, 최석정, 박종우 의원)과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관광협회, 한국의료관광호텔협회 관계자들이 참석, 인천 관광사업 정책 및 연구회의 연구 방법 및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인철 인천시 관광진흥과장은 올해 ‘인천 관광발전 주요사업계획’을 상세히 소개했고, 각 기관·단체 참석자들은 인천시 관광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설명했다. 대표를 맡고 있는 허준 의원은 “오는 7월 인천관광공사 부활 등 현 시점이 인천 관광의 골든타임”이라고 전제하고, “인천 관광정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허준 의원은 지금 인천의 관광산업이 중요한 이유로 “인천 재정이 힘든 상황에서 관광만이 재정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며, “인천관광을 발전시켜 인천 재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또, 올해 관광의 중요방향을 유커 유치로 삼아 그들이 실망하지 않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유커들이 인천을 찾고 이곳에서 지갑을 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인천미래관광발전 연구회는 인천의 신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관광산업의 정책 연구를 위해 구성된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다.



문화복지위원회,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인천가족공원 등 현지시찰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한구)는 지난달 11일(수) 선학국제빙상경기장 개장식 참석과 인천가족공원 방문을 시작으로 제222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돌입했다.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태릉 아이스링크에 이어 국내 두 번째 국제규격의 빙상경기장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이다. 국제규격의 아이스링크 2개면과 컬링장 1개면을 갖추고 있다. 총 33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이 빙상경기장은 물 위에 떠있는 빙산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규모나 형태 면에서 인천 동계스포츠의 상징물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다.

이날 개장행사에 참석한 이한구 위원장을 비롯한 문복위 위원들은, 최근 언론보도 사항을 언급하며 현장감사 수급문제 개선 및 시민홍보활동 강화 등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체육회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문복위 위원들은 또, 2단계 사업이 한창 추진 중인 인천가족공원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세월호 안치단 시설 점검과 희생자 참배 등 사업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경제자유구역·원도심 투자 유치 묘안 찾아라”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11일 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민간협의 기구에 관한 회의’를 열고,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원도심에 대한 향후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박승희 부의장을 비롯해 허준, 박영애, 황흥구 의원과 굿몰 이진 회장, M01코노믹 조재성 대표, 재개발재건축 장종호 조합장, 경제자유구역청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추한석 투자유치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박승희 부의장은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원도심의 투자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법인 투자자는 물론 민간투자자를 위한 규제완화와 원스톱 서비스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집행부서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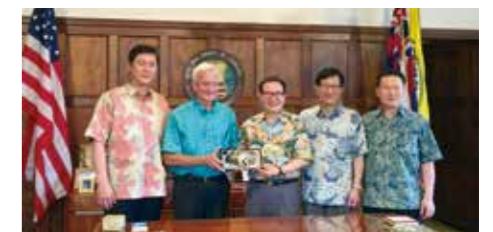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17일 2기 의정발전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 30명을 위촉했다. 자문위원은 경제, 체육, 학회, 사회단체, 주민단체 등 1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2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017년 3월 16일까지 2년이다. 자문위원은 상임 위별 분과로 활동하면서 의정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시장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의정발전 자문위원은 2013년 3월 처음으로 발족했다. 노경수 시의회 의장은 “자문위원이 분야별로 전문성을 살려 원활한 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자문위원이 의정 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협업체 나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발전 자문위원 30명 위촉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용덕)는 지난달 5일(목) (가칭)남희학교 설립 예정부지를 방문했다. (구)인천대학교 공학관을 철거한 자리에 건립되는 (가칭)남희학교는 기존 특수학교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남·동·중구 지역 장애 학생들의 통학불편 및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원도심 지역의 특수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0학급 총 200명의 장애학생을 수용할 예정이며, 2017년 9월 개교가 목표다. 이날 최용덕 위원장과 박종우, 이강호 의원은 시교육청 관계 공무원에게서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시찰했다. 이들은 관계자들에게 학교 규모의 적정성, 학교 위치에 따른 장애학생의 접근성, 도시개발사업 연계성 등 감안해 건립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부탁했다.

장애학생 200명 수용, 남희학교 부지 방문

호놀룰루시의회 방문, 상호 우의 다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4일부터 9일까지 미국 호놀룰루 시의회 초청으로 호놀룰루 시의회(의장 어니스트 마틴)와 호놀룰루 시(시장 커크 칼드웰)를 방문했다. 한인 3세이며 하와이주 상원의장인 도나 김을 만나 양 도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시의회는 우리나라 최초 미주 이민의 정착지인 호놀룰루 시의회와 지난 2012년 11월 19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이민사를 비롯한 문화, 환경, 관광, 경제 등 각 분야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도시발전과 의정 활동 강화를 위해 양 도시의 주요행사 시 상호 초청 방문도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후보 ‘작대기’로 기호 표시

6.25 전쟁이 끝난 후 상흔이 아물면서 시 행정도 급속히 안정을 찾아갔다.

인천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시 정책과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1953년(단기 4286년)부터 1961년까지 ‘인천공보(仁川公報)’라는 주간 신문을 발행했다. 어찌 보면 본지 ‘굿모닝인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문을 통해 그 시절의 시 정책은 물론 인천의 사회상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인천공보’의 기사를 뒤 수 있으면 원문 그대로 발췌하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문장은 현재 어법에 맞게 고쳐서 매월 이 지면에 게재한다. _편집자 주

정리 유동현 본지 편집장

시민의 소리 | 화통 터지는 전화, 사담(私談) 삼가시오

전화란 과학문명이 우리들에게 준 이기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명의 이기가 오히려 쓰는 사람들의 화통을 터트리는 일이 있으니 웬일일까요? 저희 직장이 동사무실에 까닭에 많이 경험하는 일인데 동사무실에 전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과 급한 일로 연락이 필요할 때는 대개 달려가는 것이 낫습니다. 전화로 신호를 하면 말하고 싶은 사람이 수화기를 받아 쥔 때까지 보통 1시간, 2시간은 교환대에서 ‘통화중’이라고 연발하는 교환양의 소리를 듣게 되나… 화통이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면 빈곤한 동재정을 무릅쓰고 전화를 놓고 있다는 것이 어처구니없기도 하여서 당장에 내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물론 시청에 전화가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공무 아닌 사담으로 소비하는 시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런 유용무용의 사담을 없애 하여 줄 것과 하루속히 급한 용무의 통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의 이기인 전화를 발명하지는 못했지만 제대로 쓸 줄 알아야지 문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53년 4월 22일자)

상습 체납자에 강권 발동

시에서는 국민 4대 의무의 하나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부득이 강권을 발동했다. 개시된 강권에 의해 가재를 차압 인양하는가 하면 그중 고액체납자로 악질성을 띤 자는 사직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수십 번 관계자가 독려라기보다 애걸하다시피 납세를 간망해도 코웃음만 치고 모른 체하던 인사들이 고발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당황하여 세금을 낼 터이니 제발 보류해달라고 애걸복걸했다. 이 모습을 볼 때 웃음보다 한심한 생각이 앞서니 우리는 다시 한 번 반성하여 구름이 끼었으면 빨리 개여야 한다고 관계자는 진술했다. (1955년 4월 4일자)

호랑이 실은 배 입항

4일 하오 늦게 인천항에는 멀리 미국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오는 한 마리의 호랑이가 입항하였다. 이 호랑이는 ‘필리핀베어’호에 의해 인천에 왔는데 동 선박에는 이밖에도 동 새끼 세 마리 그리고 미국산 물개 다섯 마리 등이 실려 왔으며 아프리카산 사자도 한 마리 있었으나 아깝게도 항해 도중에 죽었다고 한다. (1955년 4월 11일자)



한·영군(韓·英軍) 친선 축구 경기에서 시축을 하는 김정렬 시장(왼쪽). 1971년 식목일에 민동산 수봉산에 나무를 심는 공무원들과 학생들



한·영군 친선 축구 경기

지난 1일 하오 2시부터 공설운동장에서 영국 순양함 ‘뉴— 카슬’호를 환영하는 국제친선축구시합은 동 순양함팀과 인천HID팀이 겨룬 가운데 전반전에서 HID팀이 3대0으로 득점하고 후반전에서는 함정팀의 기권으로 대회는 HID팀이 승리하였다. (1955년 4월 11일자)

수봉산록에 5천 그루 식수

한 그루의 나무를 찍어내느니보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 황폐한 붉은 산에 푸른 옷을 입히자는 인천시 주최 제 11회 식목행사가 청명과 한식과 식목일을 겸한 지난 5일 상오 10시 수봉사(壽鳳寺)정원에서 김정렬 인천시장을 비롯해 시청 전 직원 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기념식을 거행하고 수봉

산 기슭에 리기다송 1천 그루, 해송 1천 그루, 오리나무 1천 그루, 싸리 1천 그루, 도합 5천 그루의 묘목을 각각 식재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일에는 공설운동장 개수에 수반하여 제방 관람석 주변에 버드나무(10년생) 153주와 은행나무(3년생) 200주를 식재하였다고 한다. (1956년 4월 4일자)

아홉 쌍의 합동 결혼식

멸공 전선에서 싸우다 불구의 몸이 된 상이용사들의 집단 생활처인 부평화랑농장에서는 오는 9일 하오1시 동 농장 강당에서 아홉 쌍의 원앙들의 합동결혼식이 거행하리라는데 주례는 인천시장 김정렬 씨라고 한다. (1956년 4월 4일자)

정·부통령 후보 기호 결정

중앙선거위원회에서는 9일 상오 10시 10분부터 내무부 회의실에서 7일 정·부통령 입후보 등록을 마친 대통령 후보자 3명과 부통령 후보자 8명에 대한 입후보 기호 추첨을 각 입후보자 대리인으로 하여금 실시한 결과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위원회에서는 투표용지를 작성할 것이며 동 용지에 그 순위를 ‘작대기’로 표시한 후 각 입후보자들의 성명 밑에 ‘O’표를 하면 된다. (1956년 4월 11일자)

副 統 領								大 統 領		
䷋	䷋	䷋	䷋	䷋	䷋	䷋	䷋	䷋	䷋	䷋
李 範 爽	白 性 郁	李 鍾 泰	李 允 榮	朴 己 出	尹 致 暎	李 起 鵬	張 勉	李 承 晚	申 翼 熙	曹 奉 岩

인터넷 중독 청소년 치유크amp

인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치유크amp를 엽니다. 인터넷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인터넷 치유크amp

- 일시 : 8월 1일(토)~8월 12일(수) / 11박 12일
- 장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 소재)
- 대상 : 인터넷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자 중학생 25명
- 선정 방법 : 초기면접 → 심리검사 → 참석통보 → 캬amp참여
- 참가비 : 10만원(식대보조금, 차상위계층 이하 무료)
- 신청기간 : 3월 9일(월)~6월 5일(금)
- 운영기관 : 인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주최 : 여성가족부
- 문의 : 721-2320

치매 파트너 모집

인천시 광역 치매센터는 치매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치매 치료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인천시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incheon.nid.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incheon@nid.or.kr)로 신청
문의 472-2027~9

2014 인천AG·APG '기념전시관 및 기념공원' 명칭 공모

인천시는 2014 인천AG·APG '기념전시관 및 기념공원' 명칭을 각각 공모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모기간 4월 30일(목)
공모자격 제한 없음
공모내용 2014인천AG·APG '기념전시관 및 기념공원' 명칭
결과 발표 5월 20일(수) 오전 10시
문의 458-2141~46

어린이도서연구회 신입회원 모집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인천지부에서는 2015년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어린이 책에 관심 있는 분이려면 누구라도 교육을 받고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인천지부장 이현선 010-3391-0500, 총무 최은하 010-2001-2843

여성 국비무료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인천여성복지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국비 무료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취업에 관심 있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직업훈련과정

과정명	교육기간	요일 및 시간	교육 인원	접수 마감일
맞춤형 단체급식전문 조리사과정	5월 1일(금)~7월 17일(금)	월, 화, 목, 금 14~18시	24명	4월 23일 (목)

- 교육대상 : 인천시 거주자 중 취업을 원하는 여성
- 교육비 : 무료(여성가족부 지원)
- 교통비 지원 : 5만원(80시간 기준 80% 이상 출석 시)
※ 지부담 10만원 → 수료 시 5만원 환급(교육종료 후 1년 이내 취업 또는 창업 시 5만원 추가환급)
- 문의 : 440-6526~9, 440-6547~8

'전통 성년식' 참가자 모집

연수문화원은 어른(성년)이 되는 의미를 생각하고 뜻 깊은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자, 성년식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 5월 16일(토) 오후 2시부터
장소 원인재
신청 기간 4월 18일(토)까지
신청자격 1996년생 만 19세 남녀
모집인원 남자 5명, 여자 5명,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연수문화원 방문 접수
문의 821-6229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자원활동단 모집

인천녹색지원환경센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사막화·황사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몽골 현지 조림행사에 함께 할 자원활동단을 모집합니다.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신청 기간 : 4월 20일까지
- 모집인원 및 참가대상 : 50명, 학생(초·중·고·대학생), 일반인
- 참가 경비 : 130만 원 예정
※항공, 숙박, 현지체제비, 비자, 여행자보험 등 포함
- 문의 : 851-8861

율목도서관 문화예술 행사

율목도서관은 4월을 맞아 다양하고 재미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공·작은·학교도서관과 함께하는 중구 북페스티벌

- 행사일시 : 4월 25일(토) 오전 11시~오후 4시
- 행사 장소 : 자유공원 일대
- 행사 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	11:00~11:10	개회식	
2	11:10~14:00	독후감상화 그리기대회	사전신청 필수 (꿈벗도서관, 율목도서관 동시접수)
3	11:30~14:00	도서관별 체험프로그램 참여	
4	11:30~13:30	「김광석 포에버」 북콘서트	
5	13:40~15:40	「잼스타크」 공연	
6	15:40~16:00	시상식 및 폐회식	

탄소 내리고, 포인트는 올리고!

인천시가 대기 환경이 푸른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대기환경도 살리고 포인트도 받으세요.

참여 대상

— 가정 세대(단독주택, 상가, 관공서, 학교 등)

참여 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가입
- 방문 신청 : 군·구(환경과) 또는 주민자치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인센티브 지급 및 방법

— 인센티브 지급 : 매년 6월, 12월

문의 440-8583

김경진 작가 <숨보다> 사진전

인천의 사진전문 갤러리인 '배다리'에서는 김경진 작가의 <숨보다>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숨'보다

- 일시 : 4월 3~15일
- 장소 : 사진공간 배다리
- 오픈 : 오후 1시~6시 30분(목요일 휴관)
- 위치 : 시 동구 금곡동 14-10
- 문의 : 010-5400-0897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영화 보는 날

컴팩스마트시티에서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영화 보는 날로 정하고,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컴팩 마수 예술극장

- 내용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가족 관람 영화, 공연 프로그램 운영
- 제목 : 쿵푸판다2
- 일시 : 4월 29일(수) 오후 7시부터
- 장소 : 컴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관
- 관람료 : 무료
- 신청 : 선착순 100명, 전화 신청
- 문의 : 850-6030

서울 국회서 인천 가치 홍보행사

인천시 서울사무소는 국회 공간을 활용, 인천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를 적극 홍보하는 행사를 엽니다. 이로써 인천에 대한 국회 및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간 4월 20일(월)~22일(수)

장소 의원회관(제2·3로비, 소회의실, 세미나실), 후생관 앞

행사 내용

- ① '인천의 꿈, 대한민국 미래' 국회 선포식
- ② '인천, 대한민국의 처음을 열다' 기획전
- ③ '2015 글로벌 인천선언' 국제행사 홍보
- ④ '인천, 씬 타는 씬 썬'
- ⑤ '인천, G-MICE 허브도시로서의 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
- ⑥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⑦ 지역 특산물 전시 및 판매장 운영

문의 440-8106

청량산 숲 탐험

연수문화원은 숲 해설가와 함께 청량산의 숲을 탐험하며 자연과 생태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합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4월 18일(토) 오전 10시~오후 1시(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내용 전문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청량산 생태 환경 체험

출발 연수구 청학동 청량산교회 뒤 공터

회비 1만원(1인, 1일)

접수 연수문화원 방문 신청

문의 821-6229

지자체 최초, 중국어판 잡지 '仁川之窗(인천지창)' 창간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시의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유커(遊客) 마케팅시대를 대비하고 인천과 중국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중국어판 잡지 '仁川之窗(인천지창)'을 창간했다.

'인천지창'은 1년에 4회 발행하는 계간지로 매호마다 1천부씩 발간한다. 3월 창간호에는 유정복 시장의 창간사,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 황싱귀 중국 천진 시장의 축사, 인천의 호텔정보, 중국 자매우호도시 현황, 천진시에 파견된 인천시 주재원의 재미있는 중국이야기, 인천에 파견된 천진시 공무원의 인천 생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한류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인천 관광코스, 인천 화교의 역사와 삶, 쇼핑의 천국 부평지하상가 등 중국인들의 관심을 끄는 콘텐츠를 담았다.

특히 인천에 살고 있는 화교들의 역사성과 그들의 삶이 녹아 있는 사진들을 화보로 꾸며 지난 100여 년 간의 화교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화교들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뤄, 중국과 인천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에 있는 인천 화교들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잡지 제호인 '인천지창'은 중국 관련 전문가, 인천에 사는 중국인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인천지창은 '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천의 이미지를 유커들에게 보여주고, 창문을 통해 좋은 빛(기운)이 들어오듯 중국의 사람(관광객)과 물(투자)이 인천으로 많이 희망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인천지창'은 인천지역의 맛, 멋 등 관광정보와 인천시의 각종 시책, 흥밋거리 등을 수록한다. 그리고 중국의 자매우호도시, 중국 언론기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관광안내소, 특급호텔 등에 배부해 중국인들에게 인천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육군 부서관 모집

대한민국 육군은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질 육군 부서관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모집 유형 육군부서관 남군 2기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사상이 건전하고 신체 건강한 자

지원 연령 입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27세 이하

※예비역은 군복무기간 고려 적용(만 28세~만 30세)

접수 4월 6일(월)~5월 1일(금), 인터넷 지원(오후 1시까지) 후 서류제출

문의 1588-6953, www.goarmy.mil.kr

2015 세계교육포럼 기간 중 '차량 자율 2부제'

인천시는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앞두고 차량 자율 2부제를 시행합니다. 인천의 도시 브랜드가치를 높일 세계대회에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바랍니다.

기간 5월 19~22일

※제한시간 : 오전 7시~오후 8시

시행 지역 인천 연수구 전역(행사개최 지역)

대상 차량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승합차

시행 방법 자율 2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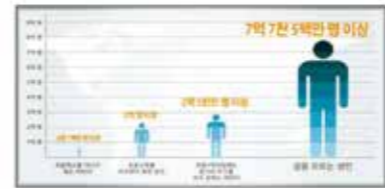
운영 방법 포지티브 방식(차량등록번호 홀·짝수 해당일 운영)

문의 440-3852

에듀 박사와 똑똑이가 함께하는

세계교육포럼 나들이

5.19~22, 송도컨벤시아



2010년 기준, 세계적으로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어린이가 6천 1백만 명, 초·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1억 7천 5백만 명에 달하는 학생 2억 5천만 명 이상. 청년들 중 초등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이 2억 2천 명 이상, 성인들 중 글을 모르는 사람이 7억 7천 5백만 명에 달한다. (출처 : 2012 EFA 세계교육포럼보고서 유네스코)



아~모두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All) 책에서 봤어요!



※출처 : 2015 세계교육포럼(www.wef2015.go.kr)



알려주세요. 궁금한 건 못 참는단 말이에요.

나도 궁금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아! 옛날이여’



수봉공원에 흐르는 역사의 숨결

수봉공원에 가면 하루하루가 짧습니다. 우각정에 오르면 인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문화화관에서 크고 작은 공연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80년대 초반, 재일학도익용군 참전 기념비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여전히 살아 숨 쉽니다.

서 아네스 연수구 만우금로



아름다운 시절

누구에게나 싱그러운 봄날은 있습니다. 이십대 초반 즈음 되었을까요.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과 함께 한 젊은 날이 흑백 사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인 걸로 기억합니다. 사진 속 장소는 변했지만 그 안의 두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서로 기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양전 남동구 하촌서로



코흘리개 친구들은 어디에 있을까

강화군 교동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빛바랜 사진을 보며 학창시절의 추억에 잠깁니다. 가슴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추억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은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임윤구 남동구 독점로

어느 여름, 작약도의 기억

30여 년 전 작약도에서의 즐거웠던 한 때입니다. 그 섬과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오는 2020년에는 작약도가 요트장과 워터파크 등을 갖춘 해양관광단지로 개발된다고 하네요. 새로운 바다의 꿈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양지훈 서구 간촌로



기억은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는 다시 역사로...

세월을 이기는 힘 오래된 가게

지은이 정진오

출판사 한겨레

출간일 2015년 3월 10일

값 1만 2천원



“오래된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그 주인이 살아온 인생이, 그 가게가 견뎌 온 세월이 바로 우리의 현대사를 꾸며 왔음을 느꼈다. 오래된 것에는 다 그만한 사연이 있다. 그 오래됨이 쌓인 것이 도시의 이야기이고 역사였다. 오래된 것을 하찮게 여기고 새것만 좇는다면, 그것은 미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인일보 인천본사 편집국 정치부장인 정진오는 최근 다양한 관점에서 인천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문화의 길’ 총서 아홉 번째 책 ‘세월을 이기는 힘 오래된 가게’를 발간했다.

이 책은 교동사진관, 인일철공소, 복래춘, 복도양조장, 대를 이은 새우잡이 한대경 선장, 인천선구(船具), 시도염전, 신광이별관, 영신상회, 우봉다방, 이수일양복점, 일역원얼음집, 이흥복 할아버지의 자전거포, 디에이치조선, 배다리 한책방 집현전 등 인천의 다양한 특징을 담아낸 가게 15곳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질곡을 온몸으로 겪어 온 사람들의 삶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저자가 주목한 가게들은 그리 특별한 데가 없다. 어느 동네에나 오래 한돌쯤 있을 법한 가게들이 다. 그렇지만, 그렇게 만난 사람들과 가게에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야기 속에 생생하게 역사가 살아 있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오랜 시간 한 가지 일만 해온 사람들에게서는 저마다 다른 냄새가 났고, 그렇게 다른 색깔로 인천을 그려왔다.

기억은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는 다시 역사로 펼쳐지는 책을 대하다 보면 지난 시대에 관한 작지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기억들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책 내용 일부 발췌

p.28~29 : 김두호 할아버지가 타는 차며 오토바이며 다 오래된 것들이다. 서류구동 차량은 1990년에 현금 1천100만 원을 주고 산 것이다. 24년째 탄다. 오토바이는 아직도 ‘경기도’ 번호판이 붙었다. 강화도가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편입된 지가 2015년이면 20년이다.

문을 연 지 50년이 넘는 교동사진관에서는 아직도 카메라 셔터가 터진다. 주로 증명사진이다. 족석에서 사진을 빼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요즘에는 그런 필름을 구하기도 어렵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서울 가서 족석 필름 100명분을 사 왔다. 이제 한 40명분 남은 것 같다.

[흑백으로 남은 세월의 나이트, 교동사진관에서]

중고생들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 줄 공상 과학 소설 ‘Higgs(힉스)’가 출간됐다. 이 책은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던 아버지와 아들이 2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공동 기획하고 공동 집필했으며, 표지는 딸이 직접 디자인할 정도로 온 가족의 정성이 가득 담겼다. “우리나라의 중고생들이 많은 과학적 지식과 세상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시사적인 문제들을 소설의 내용 속에 포함했습니다.”

공동 집필자 중 한 명인 아버지 이창근 씨는 책을 출간하고자 했던 오랜 꿈을 아들과 함께 이뤄낼 수 있어서 기쁘다는 소감을 먼저 말했다.

동서양 과학의 융합 시도 및 인류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희망을 담고 있는 이 책은, 과학적 사실과 과학적이지 않은 사실의 융합, 픽션과 논픽션의 융합, 상상 속의 이야기와 과학적·역사적 사실의 융합, 가공된 뉴스와 실제 발생한 뉴스의 융합,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 융합 등의 과정을 기술했다. 누구라도 어떤 방식이든 융합적 사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버지가, 결말은 아들이 이끌어낸 ‘Higgs(힉스)’, 2년마다 시리스로 출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 집필한, 의미 있는 책



Higgs(힉스)

지은이 이창근·이상철

출판사 책과나무

출간일 2015년 1월 27일

값 1만 2천원

※ 이 코너는 시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인천 관련 책을 출간하셨다면 이 지면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

옛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그때 그 시절 ‘옛 인천’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접수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오늘의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글 이태선 인천청년유니온 위원장



이야기 하나. 내 나이 서른 살, 얼마 전 결혼문제 특히 집 문제로 오랫동안 만나 온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 나는 지금 보증금 30만원에 월세 40만원, 관리비 5만원에 6개월간 계약한 원룸에 산다. 부동산 아저씨는 이 동네는 원래 이렇게 계약한다고 했다. 내가 사는 곳은 연수 1동 함박마을이다. 선학역까지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오늘은 비가 내린다.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고 가야겠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아침 7시 30분, 선학역 앞에는 승합차와 승용차가 길게 줄지어 있다. “혹시 〇〇〇〇에서 나오셨어요?” “아니요, 〇〇〇요.” 길게 줄지어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어제 면접을 본 아웃소싱 업체를 찾아 나선다. 이른 아침 역 앞에는 나처럼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배회하는 젊은이가 많다.

세 번째 사연. 전에 일하던 곳에서 일이 없다며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 나오라고 했다. 이번 직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물량이 많아 잔업도 많고 특근도 많다고 한다. 잔업 하고 특근을 하면 최소 150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웃소싱 업체 사람은 “우리 직원들은 일 없는 곳은 안 보내”라고 말했다. 내가 일하는 곳은 저기 남동공단 안의 어느 공장일 텐데 나보고 우리 직원이라고 한다. 하긴 그건 내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저 이번 업체에서는 오랫동안 일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 이야기. 내 직업은 바리스타다. 출근 시간은 오전 7시. 부평에서 출발하는 6시 5분 용산행 급행 전동열차를 타기 위해 부평역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집 앞에 있는 마을버스는 아직 첫차가 운행하지 않아 10분 거리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가야 한다. 그렇

게 6시쯤 부평역에 도착하면, 6-2번 칸 앞으로 가서 줄을 선다. 영등포 지하철사로 내려가는 계단과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전철에 타자마자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잠.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 졸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이번 역은 영등포, 영등포역입니다”하는 소리가 들리면 급하게 내릴 준비를 한다. 물걸레질을 하고 있는 미화원 아저씨를 요리조리 피해 일터까지 온 힘을 다해 뛰어간다. 매장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으면 그제야 날이 밝는 게 눈에 보인다. 매일 아침 출근시간 그리고 오후 퇴근시간이 가까워지면 직장이 집에서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인천청년유니온 조합원들의 이야기다. 지금도 수많은 청년이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고 일자리를 찾아 인천을 떠나려 한다. 얼마 전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천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꿈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문해본다. 오늘 아침도 그렇게 인천의 청년들은 용산행 급행 전동열차를 타고 일자리를 찾아 길을 나서고 있다. 청년들의 미래에 희망의 빛이 밝게 비치는 그날을 기대한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Liberators do not exist.
The people liberate themselves.”
해방기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해방시킨다
-체 게바라
가고자 하는 길이 있다면, 나 스스로 나아가야 한다. 청년의 길, 청년의 꿈은 청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주지 않는다.



어머니의 경작지

올봄에도 어김없이 어머니는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앞마당에는 물론 커다란 함지를 구해

상추, 고추, 호박 등을 심었습니다.

심을 땅이 모자라 못내 아쉽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곳이 있습니다. 담벼락이었습니다.

올해부터 그곳은 어머니의 새로운 경작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수확한 농산물은 얼마 전 시집간 막내 딸네 몫입니다.

- 동구 송림동에서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